

“이만하면 나도 작가” 본사주최 35회 백일장 성황리 마쳐

본사 주최 제 35회 전국 고등학생 대상 '동대 백일장'이 지난 24일 동국관(401)에서 열렸다. 이번 백일장은 4월 10일부터 5월 12까지 치렀던 예선에서 입상한 고교생 1백 42명이 시, 소설, 수필 부문에서 각자의 창작 실력을 발휘했다. 각 부문별 주제는 △시는 '환이리 △수필 = 섬 △소설 = 눈빛이었다. 심사결과 시부에서는 이경환(창원고2), 수필부에서는 황인섭(동대부고3)군이 장원을 차지했고 소설부에서는 장원없이 박승경(안양고3)양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연구교류처, 저서·번역연구비 지원자 모집 신임교수에게 3백만원씩 연구비 지원도

연구교류처(처장=박거태·수학) 연구부는 97학년도 1학기 신입교원대상 연구비지원자와 저서 및 번역연구비 지원자를 오는 6월 5일까지 접수한다. 신입교수대상 연구비는 97년 3월 1일자로 부임한 정임강사급 교원에게 주어지며 97학년도 1학기 신입교원 연구비 지원신청서 1부와 신입교원 연구비 지원신청서를 연구부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신입교원 9명은 각각 3백만원씩 지급받게 된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신입교수 연구비 지원에 대해 연구부 이영우부장은 "신임교수들이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이로써 연구

주택설계 분야에서 본교생들 두각 현대산업개발주최 공모전 ... 우수상 1팀, 입상 3팀등

현대산업개발에서 주최한 제 4회 공동주택 학생설계공모전에서 본교 건축공학과 재학생 1팀이 우수상을 수상하고 3팀이 입상에 당선됐다. 김종관, 서교은, 양병일군이 출품한 'INTERSECTION'이 우수상을 수상했고 고정재, 양우형, 이경철 군이 출품한 '조우(造遇)', 나이선, 이정혜양이 출품한 'VERTICAL GENERATION', 이송석, 손형욱, 이선환 군이 출품한 'LIVE OR LIVING'이 각각 입선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서교은양은 "공모전을 통해 아파트 설계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상까지 받게 되어 무척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총동창회, 정기총회 개최

총동창회(회장=황영수)는 제 19차 정기총회를 오는 28일 오후 7시 호텔 소피텔 앰버서더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한다. 제 19대 임원 선임 인준을 위해 열린 이번 총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제 58차 정기 이사회 결의사항 인준 △ 1996년도 감사보고 및 결산심 의 △ 199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 의 △ 회칙 개정 △ 제 19대 임원 추대

한총련, 학생운동 역량 재정비 30일 한양대서 5기 출범식... 정부 강경방침 진통 클듯

"전대협·한총련 10년의 힘으로 김영삼정권의 한총련 음해, 탈선책동을 분쇄하고 민중들속에서 회망으로 자리 잡아 한총련의 자존을 세워내자" 제 5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강위원·국문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출범식이 오는 30일부터 6월 1일 까지 한양대학교에서 치러진다. 전선 전대협 6기를 포함 11년의 역사를 맞는 제 5기 한총련은 △계속되는 학생운동 탄압에 맞서 투쟁해온 학생운동의 역량 과시 △김영삼 정권 타도투쟁 결의 △ 전대협·한총련 10년 역사를 정리하고 그 역사속에 살아있는 학생운동의 대표 조직임을 결의 △ 공쿠양정 계승 투쟁등에 이반 출범식의 의미를 두고 있다. 출범식 일정은 30일에는 전야제, 31일에는 학자주, 조총위 출범식에 이어 한총련 본야당이 열리고 6월 1일에는

'국제원효학회 창립기념 원효학 심포지엄' 개최 오는 30일 문화관서 원효학의 세계적 자리매김 계기될 듯

국제원효학회(공동의장=송석구 총장, 뉴욕주립대학교 셸리 스트리트 케니 총장)가 주최하고, 동아일보사가 후원하는 '국제원효학회 창립기념 원효학 심포지엄'이 오는 30일 개최된다. 개회 90주년기념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오후 1시부터 치러질 이번 행사는 '원효의 사상체계와 원효전서 영역상의 제문제'란 주제로, 1부는 개회식, 2부는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 심포지엄의 1부 개회식은 △삼귀의 △송석구 총장의 개회사 △뉴욕주립대학교 셸리 스트리트 케니 총장의 인사 △오석원 이사장의 치사 △오명 동

경주캠, 학생총회 개좌... 총학 전원 탄핵 결정 “조속히 비대위 구성하라” 중론

지난 24일 학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학생총회가 본교 경주캠 역사상 처음으로 녹아원에서 열렸다. 1천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석해야 개최할 수 있는 학생총회는 이날 1천 4백여명이 참석해 순탄하게 이뤄졌다. 전담 학생총회를 준비한 각 단대 및 자치기구들은 '학생총회 사수를 위한 식발 결단식'을 가지면서 학생총회 성사 여부를 쉽게 장담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총회가 성사된 것은 과단연 학생들의 참여와 총학사태 수습에 대한 학내 구성원간의 공감 이 한 몫으로 모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학생총회에 참석한 학교 위상까지 손상시켰으므로 당연히 탄핵되어야 한다'는 것에 모아졌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는 △정족수 확인 △개회식 △신중위해 △회칙개정 방법 설명 △안건 상정 △안건 의결 △자유 발언 △해피시 온으로 진행됐으며, 정족수 확인이 끝난 뒤 총학 회장은 "3천 4백여명의 학생들이 총학 전원 탄핵에 서명했음에 이것이 인정되지 않아 학생총회가 소집됐"이라고 밝힌 뒤 "중운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지고 일을 해결하지 못해 학우들에게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일(19일) 각 단대 및 자치기구들은 총대의원 사무실에 모여 학생총회 참가 여부를 논의하였지만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학생총회는 인문대, 자연대, 상대, 총여, 돌연 회장만이 공식적으로 참석한 채 진행됐다. 이로 인해 학생총회 의장은 중운위를 통해 호선되지 못한 관계로 당일 학생총회 참석자의 공의를 얻어 인문대 회장이 대행하게 되었다. 의장으로 지명된 인문대 회장은 회의진행 방법을 설명한 후 안건 상정에 들어갔다. 학생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학생회 전원 탄핵 인준 △임석대총회 임정 확정 및 비대위 구성 승인 △선거권력 회칙개정 발의 등이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학생총회에 참석자 과

보리수

불교에서는 일 년을 넷으로 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기우가 좋지 못한 겨울과 여름은 수행하는 기간인 인가에 들어가며, 활동하기 좋은 봄과 가을에는 교화의 길을 떠나는 유행기인 해제(解制)에 접어들다. 인가에는 겨울에 하는 것을 동안거(冬安居)라고 하여 음력으로 10월 15일에서 다음해 1월 15일까지인 3개월간이며, 하안거는 4월 15일에서 7월 15일까지인 3개월간이다. 이때는 되도록 신문부의 출입을 금하며 정기간의 여행도 삼간다. 또 본사나 혹은 선원이 있는 곳에서는 미리부터 용맹정전에 들어갈 납자들의 입상을 허용하는 방부(房付)를 받는다. 유명한 선지식을 지도하는 선원은 다투어 방부를 드리로 미리부터 신청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며, 어지간한 선원이라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하안거(夏安居)

이 때에 참고되는 사항은 3개월 간의 공부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 가능성이 없는지, 혹은 대중들과 화합하지 못하여 수행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지는 않을지 등을 심사한다. 그 과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다른 곳에서 수행하였을 때 도반들의 평가나 평소의 품행과 지계생활 등이 고려된다. 이러한 탐문을 통한 정보 수집은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하지만, 그 정확도는 틀림없다. 이를 대중들의 동의를 거쳐야만 입방이 허용된다. 하루의 일과는 새벽 3시의 기상과 예불, 참선, 대중이 함께 하는 청소인 율력, 6시의 아침공양, 차를 마시는 휴식, 8시부터 참선, 사시마지인 기도, 11시 30분에 점심공양, 산책인 율행, 오후 2시부터 참선, 5시 저녁공양, 7시 예불, 참선, 9시 취침이 일상적인 일과표이지만 취침시간을 아껴서 공부를 계속하는 납자들도 많으며, 기상 시간을 새벽 1시나 2시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 보통은 하루 21간 참선에 10분씩의 방선(放禪)을 하여 10시간의 참선을 하지만, 12시간, 14시간, 16시간씩 참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할 경우 공양 뒤 양치할 시간이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일전에는 가까운 도반 중 50이 넘어서 안거에 들어가 친구가 있다. 그것도 결제기간 동안에는 스님들의 출입도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엄하기로 소문난 문경 불암사 선원에 들어 갔다. 30대도 전다기 어려운 용맹정전을 50대에 선택하였다 것은 재물가의 의미가 있으며, 생사를 건 대탈삼이 아닐 수 없다. 이 도반을 부러워하면 서 대도(大道)를 성취하길 기원한다.

한보광

불교대 선학과 교수

교수등칭

▲송석구(철학) 총장 = 지난 5월 24일 본교 개교 90주년기념 문화관에서 열린 한국철학회 정기총회에서 제 29대 회장으로 피선됨. ▲임영정(특수교육)=23일 프레스센터에서 독도학회가 주최하는 '독도 연구에 관한 역사와 국제관계'라는 세미나에서 '조선 해금(海禁)정책과 독도'라는 논문발표. ▲김삼규(보목공학)=25일부터 31일까지 국제대담학회 논문발표자 이탈리아 피렌체 방문. ▲박영석(경영학)=23일부터 25일까지 법정대 화이년사학의 논문 발표자 일본 신주쿠 방문.

알림


제1227호는 한총련 출범식 취재관계를 6월 3일 화요일자로 발행됩니다.

장승처럼 삼시다.

우리내 장승은 목석이 아닙니다.
동네 어귀에서 늘 사람들과 함께하며
착한 사람 복주고 악한사람 벌주는 또하나의 동구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내 장승은 초병이가 아닙니다.
이리기웃, 저리기웃
여기술깃, 저리술깃 가범지 않습니다.
한자리에 평생을 서서
은갖 얘기 듣고 들려주는 또하나의 동구사람이있습니다.

우리내 장승은 목석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그리고 당신이
변치않는 장승이 되고자 합니다.



모집안내

△모집인원 : 서울 및 경주 캠퍼스 00명
△응시자격 : 1학년 남·여 재학생
△모집분야 : 취재 사진기자
△제출서류 : 본사 소정양식 1통, 명함판사진 1매
(지원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중)
△원서접수 : 5월28일(수) 오후 5시까지
△전형방법 : ①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② 면접
△면접일시 : 서울-5월28일(수)오후6시
경주-5월29일(목)오후6시
△원서제출 : 본사 총무부 서울: 260-3492
경주: 770-2057

‘박정희 신드롬’ 올바른 역사·의식으로 극복해야

요즘 우리 사회에 기성세대 뿐만 아니라 대학생 또래의 젊은 사람에게는 ‘박정희 향수론’, ‘박정희 신드롬’이 유행이다. 얼마전 서울 시내 한 대학에서 그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했던 여론조사결과, 역사상 북제하고 싶은 인물에 박(前) 대통령은 3위에 올랐고 역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높은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이와 비슷한 각종의 여론조사 결과 역시 이 ‘박정희 신드롬’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것은 대형 부정부패에 의한 정치적 불안정, 경제위기, 정권교체 관련 뉴스현상 등 현재의 사회적 위기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한층으로 이해가 가기도 한다. 그러나 좀 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는 ‘역사 의식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박정희씨가 누구인가. 독재권력에 맞서 피를 흘리며 정권하 4.19혁명 1년만에 군사정부를 일으켜 물거품으로 만든 정본인이 아니던가. 또한 그의 집권 18년동안 우리 사회는 얼마나 침묵을 강요당했고 도처에서는 인권이 무참히 유린당하지 않았던가. 민중적 지역분열의 구도도,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도 모두 그의 작품이 아닌던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유신헌법은 또 어떠한가.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냉철하고, 명확하게 내려야 한다. 심정적으로 현재의 정국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서 부조절적으로 과거의 독재자에게 향수를 느끼는 것은 역사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

청년학생들은 올바른 역사 의식에서 박정희 개인 그리고 박정희 정권 18년만에 대한 정확한 자기 평가를

가 있어야 할 것이다. 조영학 (법과대 법학과)

80년 5월을 상기하며 비판적 시각 키워보면

언제나 푸르름의 상징이던 5월. 하지만 대학이라는 문화·상징적 공간에서 느낀 5월의 의미는 그 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5월의 의미와 사뭇 다르게 인식되었다. ‘갯빛 5월’. 바로 이말이 내가 가지고 있던 푸르름의 상징인 5월의 결매기를 과감히 벗어 던지게 해주었다.

1980년 5월 18일. 바로 이날은 광주 민중들 모두가 ‘계엄철폐’와 ‘전두환 타도’의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나와 항거한 날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1997년 5월을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또한 생각하는가 하는 것일까? 지금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부정부패와 비리사건들은 이러한 우리의 의문점에 충족할만한 해답을 보여주는 것 같다. 한보비리와 김현철 비리사건 등에서 볼 때 우리는 1997년의 5월을 무비판적으로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아직까지 천이백만의 노동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준 노동악법이 철폐되지 않고 있고, 올바른 목소리를 외치는 백만 화도와 민중들을 무차별한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정부의 정책을 볼 때, 정말 5월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새로워져야 한다.

1980년, 광주의 민중들은 무엇을 위해 자신의 헌 몸을 아끼고 용감하게 공권력과 대치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보고, 오늘의 상황이 그때와는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지난날의 결매기를 과감히

벗어 던지고, 좀 더 비판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1997년 5월을 살아가는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 정삼옥 (사범대 역사교육과)

금강생활관 오픈 하우스 문제점 산적

얼마전 금강 생활관 오픈 하우스가 있었다. 학교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사를 주최하였다는 점에서 칭찬받을 만하다. 하지만 그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돋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고에도 불구하고 현 지자 위원들이 고쳐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되어 적어본다.

우선, 자치 위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행사 참여율과 지속적인 상업 문화화 조정함에 대하여 물고 싶다. 전체 9백여 학생 중 자치 위원들을 비롯한 몇몇 관생만이 참여한 행사로 끝나고 말았다는 점. 또한 예년과는 다른 행사(전야제, 라거춤 대회 등)를 주최한 것은 좋았으나 경제팀이라든가, 여성 댄서를 동원하는 등의 여성을 상품화에 이용했다는 점, 라거춤 공연 대회 등의 상업 문화화 조장한 문제, 행사간의 연결성이 없었던 점, 비판생은 물론 관생들조차 이렇지 못했다는 점 등은 앞으로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앞으로 개최될 임시 대동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다음으로 행사를 개최했으면, 반드시 결산 공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다. 현재 학교의 모든 학과, 단대, 자치기구들은 모두 결산 공고를 하여 학생들이 낸 학생 회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학우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유독 금강 생활관 만큼 결산 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 이번엔 열린 오픈 하우스뿐만 아니라

지난번 열린 불림 대회 등 모든 사용 경비 일체를 철저히 밝혀 관생들이 믿고 따르며, 인정할 수 있는 깨끗한 금강 생활관 자치 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 자치 위원회는 선거시에 내세웠던 공약을 지켜 나가야 한다. 기숙사 현관문 폐쇄를 자정까지 연장하겠다 ‘기숙사 각 방에 직통 전화기를 설치하겠다’ 남동과 여동간의 매월 행사를 가지겠다 ‘일요일 매점들을 운영하겠다’ ‘다만 자치위원회를 설치하겠다’ 등의 공약을 선거 때에만 내세우지 말고, 현 자치 위원회는 공약을 공(空)자가 아닌 약속으로 지켜야 할 것이다.

금강 생활관의 관생들은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김환식 (성경대 회계학과)

이건우 (자연대 자연과학부)

21세기 대비해 저마다 경쟁력 갖추자

97년 5월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 젊은이들은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각자가 자신의 개성과 특징에 맞는 경쟁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어 국가 발전에도 이바지한다. 모든 젊은이는 아니지만, 일부 젊은이의 행동은 보기에 민망스러울 수 있다.

이런 경향을 몇 가지 나열해 보면, 첫째로 정신적인 면에서 낙담했다는 것이다. 이는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 몸은 커졌지만 그에 따라야 할 정신력이 약해졌다는 것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약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편리함의 추구이다.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보다는 쉽고 재미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에 나타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낭비이다. 이는 무작정의 씀씀이보다는 고가품을 추구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N정바지의 가격이 십만원 이상의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기성세대들이 자기 발전에만 역량을 두고 그 다음 세대에 넘겨줄 정신을 남기지 못한 것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기성세대를 일말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잘못을 고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다가올 21세기를 준비할 수 있게 하며, 동시에 각자 모두 경쟁력을 길러 변화 속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겠다.

김환식 (성경대 회계학과)

후회없는 대학생 울바른 ‘자유’로 바꾸기

난 학교에 들어온지 얼마안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대학이라는 곳에 와서 허둥지둥 1학기를 보내버린 새내기이다. 거의 1학기가 다 지나가는 데 ‘내가 해운일이 무엇인가.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말을 마음속에 수십번씩 되뇌어 본 적이 몇 번인지 모를 만큼 후회스런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생활을 계속한다면 0.1과 같은 줄거움을 아마 대학 4년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 된다.

하지만 이렇게 후회하는 내가 학우 여러분한테 해를 맡은 이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 부끄러운 후회스런 대학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난 여태까지 강의시간에는 누구 못지 않게 열심히 들으려고 애써왔다. 강의청취태도에 대해 몇 가지 충고



문의는 (02)260-3491 · 2 (0561)770-2057 · 8

를 하려고 한다. 다른 강의시간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들어가는 몇몇 강의시간에는 이게 정말 강의실인가 할만큼 책상배열이 형이상학적으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다. 원모양, 사각형모형 등등 누군가 답과 장소가 미정확 않아서 빈 강의실을 찾아 거가서 이야기를 나는 모인데 끝났으면 제자리에서 다시 배열을 해놓든가, 아니면 좀더 예쁜 마음씨를 가지고 전보다 가지런히 놓고 가는게 학생인 대학생이 지켜야 할 도리가 아닐까? 하도 안중계 보여서 내가 몇 번 일찍와서 맞춰놓곤 했는데 역시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이번만 아니라 책상배열이 원래 잘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기와 친한 사람끼리 붙어 앉으려고 책상을 제멋대로 배열하곤 한다. 앞에서 교수님들이 보시면 정말 짜증나는 일이 아닐까? 한바더 더 한바더 그렇게 끼리끼리 앉아서 열심히 듣는다면 그것만으로 교수님에게는 위안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수업들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ID:dgpress (DGU9번방, ID:dgpress 메일)과 여론팀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들러와 왔는지, 밀린 얘기를 하려 왔는지, 어영부영 출석일수나 채우려 왔는지 모를 상황이다. 이제까지 몇몇 능담했던 얘기로 부족한 새내기 수업시간에 고쳐야 할 점에 대해 몇가지 얘기를 했다. 우리 한 번 생각해봐요, 대학이라는 곳이 아무런 ‘자유’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위와같은 자유랄지 않은 자유를 외치는 대학인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가? 간혹 그런걸 자유라 함 대학인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대학인은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모르는게 틀림없다. 그런 자유가 아닌 방송이다. 난 절대로 대학에서 자유를 포기하려는 말은 안 한다. 다만 진정한 자유를 아는 대학인이랄까 참 대학인이라는 것이다. 고등학교때 대학교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을 마음껏 하는 자유를 누리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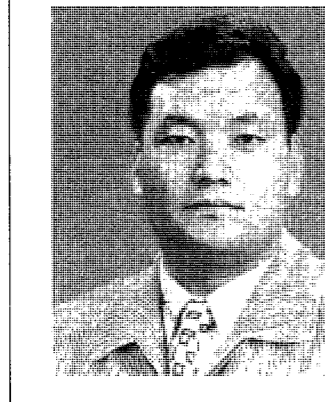
신성용 (전자전기공학부)



우분들 어떻게 생각지 마시고 관심 좀 가져주세요. 쫄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사는 현실에 좀더 정의롭게 다가서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 ▶ 한 조국의 운명을 짊어지고 총진군하여 자유, 민주, 통일조국을 건설하는 우리들의 한총련! ▶ 나의 조국! 나의 사랑! 한총련! ▶ 한총련의 실체를 밝혀라. 삶을 바꾸고 ▶ ‘한’비판 우리를 위해 싸우고 나니. ‘총’체적 난국이라 몰아부치며. ‘한’속적 탄압을 하는 한정부는 물러가라 ▶ 투쟁하는 조국! 애국하는 조국! ▶ 국민에게 집시를 달라고 징정 국민과 거래를 사랑하는 단체 한총련. ▶ 얼마 되지 않은 인연이라...애 얼마 되지 않음까지요. 자신만을 위한 삶 자신한테만 의미있는 삶이 아닐까요. ▶ 한총련이 뭐예요! ▶ 누구 마음대로 과학회화가 한총련 밀어내? ▶ 시위하다 죽음을 당한 대학생생들 생각해 말고 시위하다 죽인 정도 생각하라. 그들도 우리의 친구일 수 있다. ▶ 한총련에 대한 대인있는 비판을 하자. 한총련을 비난하는 자여.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 ▶ 불림 이적단체 ▶ 내가 바로 한총련. 내가 바로 강위협. 강회장의 눈빛으로 한총련을 강화하자!

동/문/칼/럼

세상보기, 그리고 언론



바라보는 창에 따라 세상은 참으로 달라진다. 한평도 안되는 갇힌 공간에서 바라보는 세상과 새파란 잔디, 새파란 지붕을 이고 날로 난 창이 있는 공간으로의 이동이 가히 불가능하기에 바라보는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것이다. 다만 아주 짧은 공간이 동 조차 때로는 낯설어 하고 또 때로는 즐거워 하면서 새로운 공간이 동을 모색하기에만도 기쁜 숨을 몰아 쉴 때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그저 바라보며 수많은 추측, 과

학적분석 등으로 아직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공간이동을 두고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 공간이동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삶들이 어떻게 공간이동을 이해하고 빈자리를 채울 것인가와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사람들의 책임에 관한 이야기다. 얼마전 한 번도 빠짐없이 사랑방 진료실을 찾았던 김경희 할머니가 사랑방 진료실을 찾지 않았다. 그전부터 병이 심각했으니 걱정이 앞섰다. 같은 동네 할머니들께 감람이 어머니의 안부를 물으니 먼길을 떠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들려주는 한마디. “이보게 군수, 감람이머니 먼 길 떠나기전에 한번 보고 가려고 얼마나 찾았는데 잘 아가? 다시 못올 길이라서 그렇지 떨어져 사는 자식보다

더 자주 본 당신 한 번 보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야 한다고 운명하기 직전까지 그렇게 찾았는데” “그럼 할머니가 왜 연락을 안했는지요” “사람들 마음은 다 우리 같지 않아서 그런거 아가. 그 자체로는 사람들이 군수가 뭐하는 사람인데 이 바쁜 시간에 여기에 오겠는가하며 군수가 출장을 갔다하고 말았다 아가”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군수하고 이야기하고 참도 맞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가. 그러니 그럴 만도 하지” 그렇다. 자제들의 입장에서 능히 그러고도 남음이 있다. 살기에 바쁜, 아니 바쁘지 않더라도 선거를 위한 안부 물으니, 구정정이나 하는 사람들의 얼굴이라도 한 번 제대로 본 적이 있었는가. 경험의 차이는 의식의 차이를 낳고 의식의 차이는 태도의 차이를 낳기 마련이다. 경험의 빈자리를 메

꾸는 역할의 최일선에 있는 언론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창을 제공하여 태도의 차이까지 이끌고 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 스스로 느껴보지 못했던 세상에 대한 생각이 차이에따라 결국 맘자의 소원은 그렇게 가슴에 묻힐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부모가 사는 세계, 군수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만 있었더라도 할머니가 참도 맞고 하는 걸 그렇게 당황스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접하는 총추는 세상에 대한 절반의 책임은 다양한 창을 통해 주인에게 울바른 태도를 이끌도록 하는 자기역할을 맡기고 주인을 무는 ‘버릇없는 개’의 형국을 하고 있는 언론에 있다. 오규석 (한의과 94졸 ·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목errickol

- who?
- 96 최은정 생일 축하!
- 독심
- 수고하셨습니다
- 축하합니다
- 늘 그리운 헤민이의 생일은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Peter Choi
- 법대 96 우근·철·보경·해인의 성년을 축하해요.
- 법대 96응옥
- 성희아 성년이 된 걸 축하해
- 현경, 심현
- 미경아 생일 축하한다. 항상 웃을 잃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 숲 좀 즐기고 행복한 나날을 빌려... 사랑해!
- 경성96 철이
- 조혁성 생일 축하한다.
- 동국대 김도부. 춘계 서울시 대학원생전 남자부 우승을 축하합니다. 여자부 3위에겐 할 말 없을. 겹도 부 화이팅! 내년에 한 번만 더 우승하면 3연패. 우승기는 영원한 동국대 김도부의 것.
- 19일 성년의 날을 축하한다. 지영·경화·상욱·병준아

- S.D.E
- 30기 이창민
- 국교의 미래를 개척하는 하나가 되는 97. 나 너희를 모두를 사랑하노라. 27, 28일 탈 공연 꼭 와서 많이 느끼고 응원해오.
- 97 기쁨조장
- 화공과 축구 우승. 무적무패.
- 24일 역교과·역주 일일답사 잘 다녀 오세요.
- 은순
- 한우아! 빨리 학교오도록 해라. 97아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
- cho
- 동익장터
- 김기해 EXIT 12권 구입한다. 깨끗한 길로 012-424-1620(만화열로 연락)
- 그리고...
- L.J. 장발로 사랑한다.

동/악/광/장

Table with columns for '다함관 식당' and '동국관 학생식당' listing various food items and prices.

- who?
- 96 최은정 생일 축하!
- 독심
- 수고하셨습니다
- 축하합니다
- 늘 그리운 헤민이의 생일은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Peter Choi
- 법대 96 우근·철·보경·해인의 성년을 축하해요.
- 법대 96응옥
- 성희아 성년이 된 걸 축하해
- 현경, 심현
- 미경아 생일 축하한다. 항상 웃을 잃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 숲 좀 즐기고 행복한 나날을 빌려... 사랑해!
- 경성96 철이
- 조혁성 생일 축하한다.
- 동국대 김도부. 춘계 서울시 대학원생전 남자부 우승을 축하합니다. 여자부 3위에겐 할 말 없을. 겹도 부 화이팅! 내년에 한 번만 더 우승하면 3연패. 우승기는 영원한 동국대 김도부의 것.
- 19일 성년의 날을 축하한다. 지영·경화·상욱·병준아

온방골

- who?
- 96 최은정 생일 축하!
- 독심
- 수고하셨습니다
- 축하합니다
- 늘 그리운 헤민이의 생일은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Peter Choi
- 법대 96 우근·철·보경·해인의 성년을 축하해요.
- 법대 96응옥
- 성희아 성년이 된 걸 축하해
- 현경, 심현
- 미경아 생일 축하한다. 항상 웃을 잃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 숲 좀 즐기고 행복한 나날을 빌려... 사랑해!
- 경성96 철이
- 조혁성 생일 축하한다.
- 동국대 김도부. 춘계 서울시 대학원생전 남자부 우승을 축하합니다. 여자부 3위에겐 할 말 없을. 겹도 부 화이팅! 내년에 한 번만 더 우승하면 3연패. 우승기는 영원한 동국대 김도부의 것.
- 19일 성년의 날을 축하한다. 지영·경화·상욱·병준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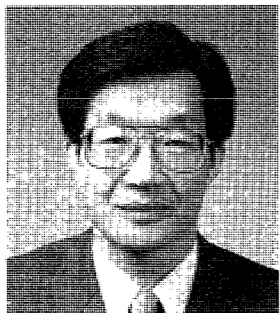
- who?
- 96 최은정 생일 축하!
- 독심
- 수고하셨습니다
- 축하합니다
- 늘 그리운 헤민이의 생일은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Peter Choi
- 법대 96 우근·철·보경·해인의 성년을 축하해요.
- 법대 96응옥
- 성희아 성년이 된 걸 축하해
- 현경, 심현
- 미경아 생일 축하한다. 항상 웃을 잃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 숲 좀 즐기고 행복한 나날을 빌려... 사랑해!
- 경성96 철이
- 조혁성 생일 축하한다.
- 동국대 김도부. 춘계 서울시 대학원생전 남자부 우승을 축하합니다. 여자부 3위에겐 할 말 없을. 겹도 부 화이팅! 내년에 한 번만 더 우승하면 3연패. 우승기는 영원한 동국대 김도부의 것.
- 19일 성년의 날을 축하한다. 지영·경화·상욱·병준아

- who?
- 96 최은정 생일 축하!
- 독심
- 수고하셨습니다
- 축하합니다
- 늘 그리운 헤민이의 생일은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Peter Choi
- 법대 96 우근·철·보경·해인의 성년을 축하해요.
- 법대 96응옥
- 성희아 성년이 된 걸 축하해
- 현경, 심현
- 미경아 생일 축하한다. 항상 웃을 잃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 숲 좀 즐기고 행복한 나날을 빌려... 사랑해!
- 경성96 철이
- 조혁성 생일 축하한다.
- 동국대 김도부. 춘계 서울시 대학원생전 남자부 우승을 축하합니다. 여자부 3위에겐 할 말 없을. 겹도 부 화이팅! 내년에 한 번만 더 우승하면 3연패. 우승기는 영원한 동국대 김도부의 것.
- 19일 성년의 날을 축하한다. 지영·경화·상욱·병준아

통일의 희망적 미래상을 심어 주는 교육

시사논단

통일 교육의 활성화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팀장

요즈음 젊은 세대들은 일반적으로 개인주의적·현실주의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경우가 많다. 통일문제 또한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젊은 세대들은 통일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심지어는 기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사회의 당연한 문제인 통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앞으로 통일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비추어 볼 때 우려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통일은 우리 민족이 당연하고 있는 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코 기피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능성의 문제이다.

최근들어 젊은 세대는 통일 이후의 사회적인 혼란이나 경제적 부담을 예상하여 통일에 대하여 소극적이거나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통일 이후에는 상당한 정도의 정치사회적 혼란이 벌어질 것이고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한 남북한 사회의 문화적인 이질성으로 인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의식구조의 격차로 인하여 사회적인 갈등이 야기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북한 경제의 침체와 식량난은 우리에게 통일에 대한 기회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통일로 인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소지를 안겨 주고 있기도 하다. 의식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통일이 된 후에는 그들이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하고 피해한 산업 시설을 복구하여 가동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의 임무이면서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이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의 젊은 세대를 중 '이대로 통일 되면 인권'이라는 식의 사고를 하는 이들이 많다.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현재의 분단된 상태 보다는 국제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국민적인 통

합력으로 볼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하고 강력한 힘을 가질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통일로 인한 후유증과 부담은 클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과 부담은 발전을 위한 하나의 시련이고 투자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통일의 과정에서, 통일 이후의 사회에서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 남한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미리 예상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포용력있는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나아가 통일 이후 우리 사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미래상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국민 누구든지 통일의 일시적인 고통과 부담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확고한 자세를 한다.

무엇 보다도 통일을 성취하고 남북한의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려면 지금 남북한 주민들의 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상호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금과 같이 불신과 적대감이 해소되지 않은 채 존속한다면, 통일의 길은 멀어질 뿐만 아니라 통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남북한 사이의 갈등과 혼란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남북한 주민들의 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이러한 통일 저해요인을 밝혀 내고 이것을 시정해 나가는 것이 통일교육의 첫걸음이 될 것

이다. 또한 통일의 과정에서, 통일이 실현된 이후의 사회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하고 이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통일교육의 지름길이다.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북한문제, 통일문제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남북간의 신뢰를 조성해 나가며, 화해를 추구하는 자세로 대처하는 것이 통일교육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올바른 지식과 건전한 통일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대학의 통일교육은 정규의 교육과정을 통한 방법, 그리고 학교활동이나 학생활동을 통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 우선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통일교육의 정규교육이다. 통일문제와 북한에 관한 강좌를 확대·개설하면 학생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 학문 분야와도 접목시킬 수 있다.

우선 북한사회의 통일문제, 북한사회의 이해, 통일문제론, 분단과 통일, 통일과 민족 문제 등의 강좌를 개설하고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강좌에 대해 학제간의 연구와 협력을 통하여 폭넓게 접근해 전반적인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또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강좌에서도 각 강좌 내용과 관련하여 북한 문제, 통일문제에 관한 내용을 강의에서 다룰 수 있다. 예컨대 경제학과의 북한경제론, 사회학과의 북한 사회론, 교육학과의 북한교육론 등의 형태로 강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 및 통일 관련 강좌가 대학의 모든 교육과정과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설

술과 상업주의로 얼룩진 대동제

비 개인 뒤의 싱그러움 햇살같은 5월 동야은, 지난 20일 통일대행진으로 시작된 대동제로 한판 신나는 축제마당이 되었다. 학내 곳곳에서는 우리옷 전시판매, 전통 국, 각종 동아리 시범공연 등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고 학생들은 예년에 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사에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분수대 외나무다리 건너기에 참가한 학생들은 모두 물에 빠진 생쥐가 되었고, 손님없는 분식집에서 주인이 손님이 되고 손님이 주인이 되는 예프넝도 벌어졌지만 하나같이 넉넉한 웃음을 잃지 않는 얼굴이 보기 좋았다.

그러나 20일 녹두거리에서 시민화랑행마당을 끝으로 막을 내린 이번 대동제는 여전히 예년의 악습을 타파하지 못한 채, 술과 상업주의로 얼룩져 비약적인 대동제의 상을 구현하지 못했다. 주정과 들끓는 단지는 하루가 다르게 우수족순 격으로 높아졌으며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난장이 대부분이었다. 마치 장물행이라도 들고나를 성 싶은 난장판처럼 투정판이며 노름판들이 대학내에 즐비했다. 게다가 대학인들의 무분별한 자유가 방종으로 뒤편을 순간을 그 누구도 눈살 한 번 찌푸리지 않은 채 무심하게 보고 넘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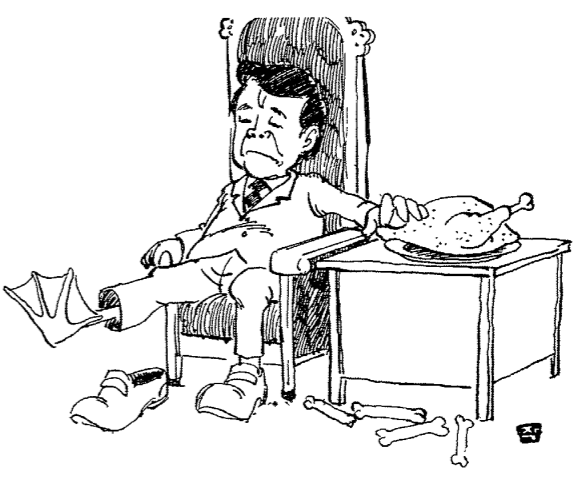
캠퍼스를 나서면 상황은 돌변한다.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공연의 율기미를 꺾어오고 사회는 현실비리와 경기침체로 위기감이 팽배하다. 담도 없는 캠퍼스의 울타리들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술과 향락이 기승을 부리고 한쪽에서는 화염병과 최루탄이 난무한다. 대동제 기간동안 행사는 무성했지만 대학안에 걸맞는 명분이나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학생회나 동연 등 중앙 행사는 예년에 비해 대폭 축소되어 소규모의 단발적인 행사로만 진행되었다. 학생들의 호응도는 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최측에서는 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감이 없지 않다.

대동제의 의미가 무엇인가. '크게 하나로 모이자는 뜻이 아닌가. 하지만 항상 '어떻게'가 문제이다. 이번 대동제는 학생들의 참여도나 행사의 다양성에서 종전보다 월등했지만, 퇴폐와 향락으로만 '크게 하나로'모였을 뿐, 진정 대학문화가 지향해야할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해마다 대동제가 끝나면 후회가 남는다. 그 후회들이 반성으로 이어져야만 하는데, '예년만 하더라도'가 '예년보다 좀 덜 하더라도'는 자위로 그치고 만다. 올해는 그 후회의 정도가 예년보다도 크다.

이제 대동제는 끝났고 학내 곳곳에는 잔치 뒤의 쓰레기만 남았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진정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쓰레기보다도 학생들의 가슴에 대동제가 무엇을 남겼는가 하는 점이다.

동국만평

고대성



입장표명

선포에만 그치는 아껴쓰기 캠페인 과소비 풍조, 절약 불감증 타파해야

국가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사회 곳곳에서 '절약 캠페인'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으나, 절약운동이 단지 '선포'에 그쳐 '실질'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기업체의 경우 눈 닿는 곳마다 '아껴쓰세요'라는 스티커를 붙이는가 하면, 대학 캠퍼스에서는 '아껴쓰고, 다시쓰고, 바꿔쓰고, 나눠쓰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녹색소비자 연대는 상설버려지장을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소비절약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풍단연필쓰기 운동, 견학을 통한 환경학습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물에 있어서 절수형 변기·전자감수식 자동수도꼭지 등 절수형 설비의 의무화 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가 하면 대학가 또한 불자절약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 전반에 걸쳐 아껴쓰자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제를 살리자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운동은 '절약 불감증'으로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아껴쓰자, 절약하자'고 입으로는 외치지만 이미 굳어져버린 소비적 생활구조 때문에 실천단계로의 발전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경제 추락의 주범인 과열된 해외여행과 과소비 풍조. 몇해전부터 '무분별한 해외여행과 과소비를 추방하자'고 부르짖지만, 아직까지 이것들은 우리사회의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해외여행자가 4백백만명에서 5백만명보다 21.7%나 증가, 20여백만이란 여행객자를 기록했고, 지금도 해외여행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수수지적자의 큰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고가의 양주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수입개방으로 인한 사치성 소비자의 수입급증에 따라 재벌층의 과소비는 줄어들기는 커녕 더욱 기승을 부려 일반 서민들에게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가 하면 국가경제를 파국으로 이끌고 있다. 이는 아무리 개개인이 노력해도 극복되지 않는 경제구조의 한계로 지적된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절약에 반하는 모습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기름을 아끼고 교통을 조금이나마 원활히 하고자 자동차 10부제를 도입했지만 10부제에 걸리는 차량이 버티지 버티지 못하고 다니는가 하면, 음식물쓰레기 역시 그 양은 줄어줄 줄 모르고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갖가지 모양과 색채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화려한 포장에 주고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요기가 되지만 경제적으로 큰 낭비이자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취객에 의해 파손되는 공중전화부속의 손해액도 상당액이라고 한다. 예년지 낭비도 배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지난 4월 7일 나라경제살리기에 앞장서고자 본교에서는 △를음 아껴쓰시다 △전기를 아껴쓰시다 △기름을 아껴쓰시다 △종이를 아껴쓰시다 △교육시설을 아껴쓰시다 △쓰러지지 말고 나누어 쓰시다 △재활용을 합시다 △자연환경을 보호합시다 8개 행동강령의 '아껴쓰기 운동' 선포식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동야의 모습은 '세태한가' 교내 114안내전화 사용금지를 제외하고는 선포식 이전과 별반 다른게 없었다. 음식쓰레기는 여지없이 쏟아져 나오고, 일회용 종이컵이 무분별하게 쓰여진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종이 또한 이면지로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고 있다. '아껴쓰기 운동' 실천의 일환으로 여학생부처에서 실시하는 알뜰장터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지만, 알뜰장터는 잠깐 호응이 좋았을 뿐이다. 교육시설물을 자기것이 아니라고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있다. 학교측도 행동강령만을 내 놓았을뿐 구체적인 대안이나 실제적인 노력은 거의 없다.

아껴쓰기 운동이 이처럼 난조를 겪는 이유는 다름아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아낄 수 있는 것을 무의식 중에 그냥 지나쳐 버리는 '절약 불감증'에 있다. 음식을 남기지 않을 만큼 배식 받

는다든가, 종이컵 대신 머그컵을 이용하는 등 학교생활에 있어서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과제물을 제출할 때 일면을 이용하는 학생이 거의 없는데 양면을 사용하면 절반의 종이만 절약될 수 있고, 알뜰장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절약이다. 최근 현가구를 새가구처럼 개조해 주는 등의 재활용 센터가 인기를 누리고 있다하니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보다 효과적인 절약을 위해 아직은 미미하지만 재벌위주의 경제구조를 극복하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요구되지만, 무엇보다 시급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식의 개혁이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 나 하나 절약이' 하는 잘못된 인식이 절약운동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절약은 나로부터, 작은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아껴쓰기 캠페인이 단순히 선포식이나 외침에 그쳐서는 안된다. 나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아끼는 습관을 길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쓰러져 가는 우리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자, 이제 또 다른 캠페인을 하나 벌이자. '절약, 외침에서 행동까지!'

(김홍환 기자)



지구의 보험료는 얼마일까?

환경오염, 전쟁, 기아... 온갖 고된에 쌓여있던 지구가 어느날 보험가입을 신청했다? 가입신청서를 받은 삼성화재의 보험전문가들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구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위험과 돌발사태 등을 예측해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구 뿐만 아니라, 작은 보험상품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전문가들은 치밀한 분석과 오랜 연구를 거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동차, 화재, 해상에서 무궁화위성보험과 같은 수많은 특종보험까지 다루는 삼성화재는 끊임없는 투자를 통해 보험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손해보험업계 1위 삼성화재는 한결 높은 전문성과 과학성으로, 어려울 때 더욱 힘이 되는 친구로 자리하겠습니다.



삼성화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insurance.samsung.co.kr

◇ 김영삼 정권 4년을 고찰한다 - 교육분야

대학교육부터 바로잡자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의장=박정민 이하 전대기련)은 지난 19일 경북대에서 '김영삼 정권의 대학교육정책을 비판한다'란 주제로 박겨용(상명대·영어 영문학)교수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현 대학교육의 문제점과 대학교육정책에 대한 강연자의 기초발제와 패널 기자의 질의응답형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기초발제에서 박겨용교수는 "김영삼 정권의 교육 평가 이전에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병폐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현재 이뤄지는 대학교육은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얻지 못하고 재정적인 지원도 확보가 되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국·공립대, 사립대의 고질적인 운영체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박교수는 "대학교육체제간의 문제인 자생적인 학문 재생산구조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국내학위보다는 외국학위를 인정해 주는 경우는 우리나라뿐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대학의 문제점 지적에 이어 대학교육정책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박교수는 "8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교육개혁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며 "대학종합평가제와 학부제 도입이 그러한 경우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제도를 받아들일 때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함에도 졸속적이고 파행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피력했다.



이어 대경 지부장 김봉익 영대신문사 편집국장, 사회로 진행된 패널 질의응답은 정학철 경북대신문사 편집국장, 한우선 경북대신문사 취재부장, 이선민 대학신문사 대외부장, 강과자 계명대 대학부장이 참가한 가운데 이뤄졌다.

교육개혁안의 4차기지를 정리했는데 탈규제가 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김희자 계명대신문사 대학부장)

=대중평을 실시하면서 대학이 전문인력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학부제를 만든 이유는 간단히 말해 백화점식 내림때문이다. 대다수의 대학이 대학원중심 대학을 지향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하면 학교가 발전한다고 본다. 서울대의 특별법 이야기가 그러한 경우라고 보면 된다. 학부제는 강제적이지 않다면 자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쯤만 다를 뿐 현재 달라진 것은 없다.

현 학부제 문제를 전면 철폐로 끌고가지 않고 어떻게 재고해볼 방법은 없는지 (한우선 경북대 신문사 취재부장)

=학부제의 취지는 획일적인 대학체제를 다양화하는 것으로 대학원중심, 교양인, 기능인양성 세가지로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각 대학에 맞는 대학체제를 구축하지 않고 소속대학학생, 교수의 기록등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혹 이러한 체계로 학부제가 잘 운영된다면 수업에 맞는 교수를 만들어 내는 재생산 구조가 없다면 힘들다. 현 학부제 시행은 너무 졸속적, 일방적(토론이 없다)이라는 것이 문제다. 학부제는 몇년에 걸쳐 연구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실시해야 한다.

-97년 대학들이 대학시장 개방을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외국대학과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현실에는 어느정도며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방법은 (김희자 계명대 신문사 대학부장)

=한국과 외국과의 대학교육은 재정적 부담없이 서류만 오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내실있는 교류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대학교육은 한국에 오는 외국인도 드물다. 이는 대외화문을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선 우리가 설 수 있는 학문적 풍토를 마련해야한다.

-상대평가에 관해 물어보겠다. 대학교육이 객관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의 사회적으로 구와 함께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지방대학이 살길은 무엇인지.

=사건으로 사회적 실용성과 무관하게 평가될 필요성이 있다. 실용적인 학업위계 질서도 요청되지만 다른 능력도 인정해줘야 한다.

그리고 지역간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대구경북의 협력 네트워크 즉 풀(pool)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풀 제도의 활용에 있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넓게 생각해서 가까이 있는 대학들이 서로 살길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조인선 기자)

◇ 학생운동 탄압 어디까지 가나

‘쇠도리개·쌍절곤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총까지’

힘의 논리, 해결방식 될 수 없다

‘쇠도리개와 쌍절곤’까지 등장한 경찰들의 집회 진압 현장은 혀를 두르게 한다. 지랄탄과 직격탄, 곤봉만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학생진압을 위한 특수부대까지 창설한 정부는 무서운 것이 없다. 예년에 거의 없었던 학교 원천봉쇄와 불심검문은 올해엔 대수롭지 않은 일과가 되었다.

작년 연세대 사태 이후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이 본격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 지난 8년 분민정부리는 기치를 내세워 학생들로부터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받고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이제 막바지에 들어 학생들의 끊임없는 질책과 이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증이 없으면 학교 밖 출입이 힘들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학교 주변엔 학생들도 모르게 전투경찰들이 배치되고 반강제적인 불심검문이 행해진다.

소위 비운동권이라는 일반 학생들에게까지도 심하다 싶을 정도로 느껴지는 정부의 학생운동 탄압은 과연 어디까지 가고 그 강도는 어느 정도인가.

정부는 지난 9, 10일 서울대에서 열린 서총련 출범식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총련 출범식에 공권력을 투입해 해당지역을 봉쇄하고 학생들에게 폭력연행, 강경진압을 시도했다. 특히 서총련 출범식 장소였던 성균관대에 전투경찰과 백골단을 투입해 원천봉쇄하고 성대 정문을 쇠사슬로 묶어버리기도 했으며 해화역과 삼선교 등지까지 전투경찰들의 불심검문이 행해졌다. 또한 9일 밤 성균관대로 진입하려던 학생들 중 3백여명이 불법 연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10일 동총련 출범식 경우도, 광운대에서 출범식을 마치고 석계역으로 이동중이던 학생들이 백골단에 의해 연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백골단은 지하철의 창문을 부수고 학생들과 일반시민들을 향해 영광 최루탄을 뿌리고 지하철안에서 사과탄, 최직이, 지랄탄들을 난

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선 한국대학 총학생회연합(의장=강위원·전남대 총학생회장)이 지난 22일 광주에서 학교로 되돌아 가다가 미행 경찰들에 의해 연행된 것을 비롯해, 숙대 총학생회장 등 각 학교의 총

연투대 고초를 겪고 있다.

한총련의 학자추위위원장 김진영(인제대 총학생회장)군이 지난 22일 광주에서 학교로 되돌아 가다가 미행 경찰들에 의해 연행된 것을 비롯해, 숙대 총학생회장 등 각 학교의 총



를 치르고 도청 노제를 위해 교문앞에 나서다가 경찰의 강력진압으로 장례식을 연기하고 대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부상당한 학생들은 지난 22일 현재 약 7백여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화상, 타박상 등은 예사이고 이빨이 부러지거나 심지가 직격탄에 의해 코뼈가 두동강이 나고, 이마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한 학생도 발생했다. 여수·순천 총학생회연합 소속의 한 학생은 장례식 '폭력진압 규탄대회' 중에 전투경찰들이 쓴 직격 최루탄에 이빨이 부러지고 얼굴이 찢어지는 중상을 입고 연행되었다가 풀려났으며, 서총련의 한 학생도 진압과정에서 코뼈가 함몰되어 의식을 잃는 중상을 당하기도 했다.

비단 집회현장에서의 강제진압 방식 만이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학생조직 곳곳에 첩보를 기하고 있으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해 한총련의 중앙상임위원을 지명수배한 상태이고 다른 학생조직도 각종 조직사건들에

학생회장이 출몰이 연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2일 '공산주의 비합법 진위담 건설' 등의 강령 등을 채택하고, 대학생 1백여명을 상대로 사상학습을 실시한 혐의로 서울대 학생연대 의장 오준호(국문4)군을 비롯한 13명

이 경찰청 보안국에 의해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이에 서울대 학생연대측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만 옹호했을 뿐 북한정권을 이롭게 하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안정권을 조성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정부의 공안분위기 조성은 이미 그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전투경찰과 백골단의 학생진압방식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까지 최루탄을 뿌리고, 광주에선 파출소 기습시위에 가담한 학생들에게 공포탄 2발과 실탄 3발을 사용한 것도 있다.

이해와 타협보다는 힘의 논리가 요즘 정부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80년대 군사독재시절에도 합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학원침탈이 자행되고 신성한 학당이 짓밟히고 있는 요즘 우리는 문민이라는 탈을 쓰고 있는 정부의 실체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된다. 처음 그들이 약속하고 내비쳤던 이미지, 그 이미지의 실체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이다.

(최경식 기자)

동아로

아크로폴리스

지난 21일 녹아원을 가득 채운 1천 4백여명의 학생들.

총학사대 수습과 인식대동계 사수를 내걸고 열린 윤광록 역사상 첫 학생총회는 예상치 못한 인원으로 열기를 더하고 있었다.

그 전날(20일)까지도 학생총회의 성사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다. 그러나 전날 백상담 앞에서 열린 학생총회 사수를 위한 식발 '결단식'을 지켜본 경제학과 한 학생은 "총학생회는 당연히 탄핵되어야 한다. 내일 얼마나 모일지 모르겠지만 일반 학우들도 생각이 있을 것이다"고 밝혀 이날의 성과를 예언한 듯.

당일 오후 12시부터 녹아원을 들어가기 위해 길게 줄을 선 학생들은 "민심이 천심이다"는 말을 대변하려는 듯이 저마다의 미심정한 표정들을 짓기도.

5여분이 흐른 뒤 학생총회 성사 인원을 크게 웃도는 1천 4백여명의 학생들은 녹아원에 모여 앉아 윤광록의 역사를 새롭게 장식하고 있었다.

인문대 학생회장이 회의 진행 절차를 설명하는 동안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행사를 준비한 측에서는 급하게 비닐을 준비해 참석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하고 우산을 미리 준비한 학생들은 우산을

받들기도 하지만 여전히 비를 맞고 서 있는 학생들이 더 많다.

개중에는 비를 피해 나무 밑으로 모여들기도 하는데,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회의는 속행되고 대부분 학생들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회의 진행 설명이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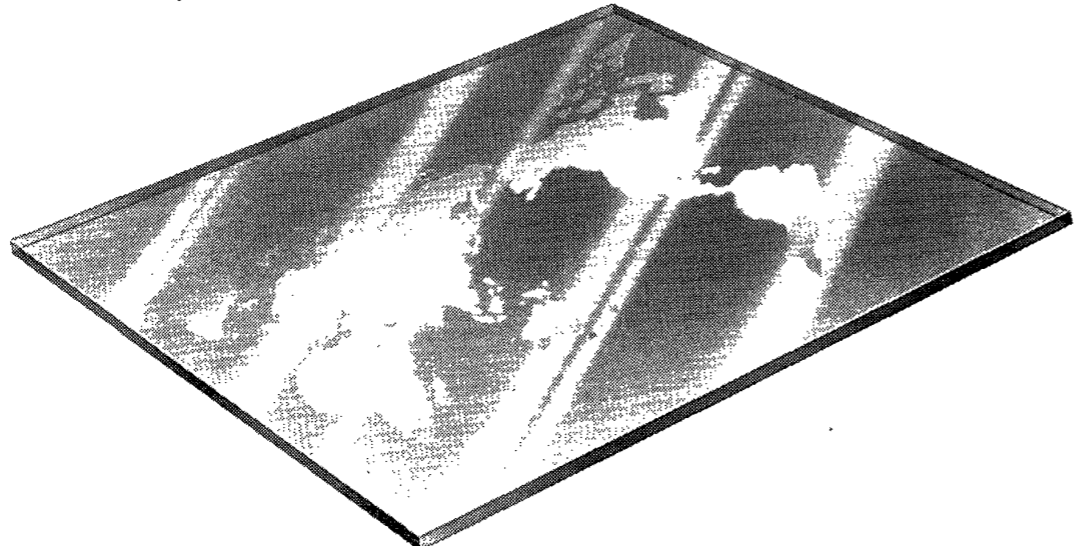
나고 △총학생회 전원 탄핵 △인식대동계 기간 확정 및 비대위 구성 △선거 관련 회칙 개정 발의 등에 대한 안건 채택이 이뤄진다.

안건이 상정되고 참석 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될 수 있는 이날 학생 총회는 우선관계로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반대자 수를 먼저 확인한 후 의결 여부를 결정지었다.

표결에 붙여진 안건에 대해 찬성 여부를 확인하고 의장이 "안건이 의결되었습니다"고 말할 때마다 참석자들은 "와"하는 소리와 함께 박수를 친다.

이날 학생총회에 참석했던 중어중문학과 한 학생은 "우리들의 의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 줄 미처 몰랐다"고 밝힌 뒤 "우리들이 당선시킨 총학생회를 우리가 탄핵시킨 것 같다"며 씩씩한 웃음을 남기며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이해경 기자)



세계 10대 유리메이커, 한국유리 - 40년 외길의 결실입니다.

볼모지였던 국내 유리산업의 용광로에 불을 지핀 이래, 오로지 유리에만 전념해 온 40년 외길. 이제, 그 결실로 한국유리는 우리나라 유리산업을 대표하며, 세계10대 유리종합메이커로 성장하였습니다.

더 좋은 유리를 통해 세상을 밝고, 아름답고, 이롭게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

한국유리가 만듭니다 - 우리장성유, 결정화유리, 건축용안전유리, 자동차안전유리, TV브라운관유리, 경질유리, 실린트 판유리, 관유리, 유리섬유, 유리섬유, 결정화유리, 건축용안전유리, 자동차안전유리, TV브라운관유리, 경질유리, 실린트

대학가의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되었던 '학부제'가 시행된지도 어언 2년이 지났다. 그러나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전공선택권 보장'과 '성적순 제한'의 평평한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제가 옳든, 그르든 학부생들은 이제 전공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것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많은 학생의 가슴을 울리는가. 다시 원초적인 질문을 던져보았다. '학부제, 무엇이 문제인가.'
 <편집자>



◇김익기(사회학) 교수

- 학부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기존 교육의 장을 과에 국한시킨 것에서 과강히 탈피해 인접과의 교육내용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학문의 폭을 넓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지난 45년간 변형없는 교육운영체제를 실시한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을 고려할 때 성급한 시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충분한 논의나 시행착오 가능성을 배제한 채 보완책 마련 계획도 없이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의 학부제 시행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생각한다.

- 구체적인 문제점을 들자면.

= 가장 큰 문제점은 전공선택시 나타날 혼란이다. 전공선택 인원이 한정되는 것은 학생의 전공 선택권의 제한을 가져오고, 전공선택 인원의 무한정은 선�택학과 비선�택학과의 구분을 가져온다. 결국 두가지 다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전공의 정원을 한정한다면 학교에서는 학생을 적대로 학생들을 세분화 할 것이다. 이

에 따라 학생들 속에서는 경쟁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며 순수 배움의 장인 대학의 본뜻은 사라지고 단순한 지식전달의 장으로 인식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전공선택이 무한정 될 경우는 학생들이 선호학과로 치중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선호학과는 기존의 교수들로 증원된 학생들을 가르치게 돼 수업의 질이 떨어질 위험이 있고, 비선호학과는 수업을 듣는 학생이 없어 폐지될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또한 각 과들은 비선호학과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분발을 하겠지만 학과의 단순한 경쟁차원으로 비춰져 이것 또한 대학사회가 하나의 경쟁사회로 전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로 학부 통합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는

의 3제제가 공존하는 혼란이 발생했다. 학교 측은 세 체제가 공존하는 명확한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이를 통일시켜 나갈 것인가를 학생과 교수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 학부제 실시 이후 교수의 강의 태도나 내용이 변화했다고 생각하는가. 변화했다면 그 방향은.

= 강의에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 기존의 과목이름을 변경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 강의의 다양성을 꾀하는 등 적극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 이같은 모습은 학생들의 수업집중도를 높인다는 긍정적 면도 보이지만, 교수들의 수업이 마치 자율경쟁체제의 하나의 상품처럼 학생들에게 선보여야

교육 개혁, 장점 지속시키고 단점 보완해야

것이다. 학교마다 학과를 학부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학과와 학부 이름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

셋째는 학과의 학부통합으로 학교 선�택이나 교수와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는 점이다. 학교가 단순한 교육의 장이 아닌 만큼 인간관계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전의 과학생과 선�택 배 및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학부학생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본교가 학부제에 잘 적응했다고 보는가.

= 본교가 교육부의 방침에 발빠른 실행을 보인것은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라 평가한다. 그러나 학부제 실시 이후 나타난 문제점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학과와 학부, 계열

하는 부분은 수업의 심도를 검토할 때 다시 생각해 봐야할 점이라 생각한다.

- 앞으로의 학부제에 대한 전망과 개선해야 할 점을 지적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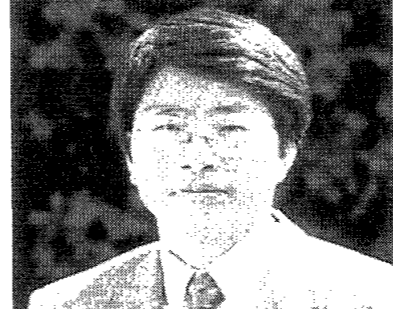
= 현 정권이 바뀌면 학부제를 포함한 교육 개혁도 완성돼 복귀될 것이라는 일부 의견도 있다. 그러나 교육은 곧 학교발전과 연관되고 이는 곧 국가 발전과 연관되는 중대한 일임을 감안할 때 정권의 변화 속에서도 교육개혁의 장점을 지속시키고 단점을 보완하는 일관된 정책을 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 방법상에서 학생과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구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최진 기자)

찬.. 폭 넓은 학문의 연구

반.. 학문의 독립성 침해 우려

'학부제'를 묻는다

교무처장을 지낸 교육학과 박부권 교수의 학부제 찬성론을 들어본다.



◇박부권(교육학) 교수

- 학부제를 찬성하는가.
 = 그렇다.

- 찬성의 이유는 무엇인가.

= 학부제로 인해 교수들은 수업에 충실하게 되었고 이로써 학생들은 질 높은 강의를 듣게 되었다.

학부제는 유사학과의 통합, 교육과정의 통합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학부제가 실시된 가장 큰 이유는 본교 학과운영 체계상의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학사운영이 비효율, 비능률적이었던 점이다. 과 이름은 달라져 배우는 내용의 70%~80%가 같아 결론적으로 나눌 필요가 없는 학과들이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부제가 시행됨으로써 학생들은 교수들 중 실력있는 교수들 직접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제도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이로 인해 무사안일에 빠져 있던 일부 교수들이 분발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학생들은 질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 여러 전공

강의를 들어본 후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본교 학부제에 대해 평가를 내린다면.

= 일반적으로 학부제는 교수들이 학생을 두고 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교수들의 계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고 비인기학과 교수들의 경우는 스스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학생들은 학적으로 학과의 정원을 제한하는 전공선택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학교는 정원의 1백 50%까지 선발을 하도록 결정, 곧 전공선택은 1백% 보장될 것이다.
 본교 학부제를 평가하면 학문의 성격상 학

는 학과를 중심으로 발전시켜 본교의 특성화로 자리잡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모든 학문에는 기초가 있는 법이다. 예를 들어 수학, 화학, 물리학 등의 기초 학문을 알지 못한 채 공학계통의 학문을 공부할 수는 없다. 어떤 학문을 하더라도 필요한 기본개념이 되는 기초학문을 줄이거나 없애서는 안된다.

- 학부제 이후 강의의 질적 부분은 변화되고 있다고 보는가.

= 무엇보다 교수들의 열의가 높아졌다. 강의계획서만 보더라도 무성의하게 작성하던 예전과는 달리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질 높은 강의'는 학부제 최대 장점

과목통합이 어려운 과도 무리하게 학부제로 통합한 타대학에 비해 본교의 경우는 (물론 1년만에 재통합되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학문의 성격 연관성을 신중히 고려하고 통합했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다.

- 정원의 1백 50%까지 선발하다 보면 조민간 1백% 전공 선택권이 보장되는 반면 인기학과와 정원은 비대칭되고 비인기학과와 경우는 심지어 사리저버릴 수 있다는 결과를 가져올텐데.

= 이제 대학은 특성화가 되어야 한다. 국가 전체적인 면에서 볼때도 경쟁이 인되는 학과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낭비이다. 재정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없으면 이제 대학은 살아 남을 수가 없다. 경쟁력 있

- 교수들의 학생지도 문제와 선·후배간의 관계부족으로 인해 저하된 소속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학부보다 학과였을때가 학생과 교수와 만나는 지리가 많아 교수의 학생지도가 용이했을 지도 모른다. 또한 선·후배간의 정으로 편한 대학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얻어지는 소속감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학과의 소속감은 학과의 이기주의를 불러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저해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치가 부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가 학연, 지연, 혈연에 몰들어 있다는 것이다.

<심미선 기자>

학부제가 학점중심의 경쟁체제 만들었다

"일정한 검증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무작정 학생들에게 시행부터 한 학부제는 긍정적인 면보다, 그 준비과정과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적 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고 권오환(공과대학2)은 학부제 실행단계의 문제점을 들어 부정적이라고 학부제를 평가한다.

그는 요즘 전공을 선택하는 2학년 2학기가 다가오자 고민이 한층 더해졌다. 학교의 학사 행정에 대한 불신과 전공선택과정에서 예상되는 여러 혼란을 생각하면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다. 학과에서 만나는 친구와 전공선택권을 두고 경쟁해야 되고, 한 학부내에서 철저한 학점중심의 경쟁을 하다보니 학부 친구들이나 학부일과는 거리를 두게 되었고 심

지어 학부친구들마저 가까이 하기 꺼려진다고 말한다.

현재 공학계열 학생 중 80% 이상이 컴퓨터 공과과를 선호하는 추세를 볼 때 이런 경쟁심리는 비단 공과에게만 나타나는 증세는 아닐 것이다. 현재 학교에서 내놓은 전공선택권의 제한기준은 학점이다.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배우기 위해서 좋은 성적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은 학생들에게 큰 부담감이 되고, 이런 양상은 수강신청 때 여실히 드러난다. 배우고 싶은 교양보다는 소위 학점때가 쉬운 과목에 학생들의 수강신청이 몰리고 있는 현상이 그것이다.

"지금 공학계열의 많은 학생들은 유학을 준

비하거나 군입대 지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권군은 공학계열의 상황을 전하며 학교측의 대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전공선택권의 자율적인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부해서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려는 학교측의 방침은 '학교의 무책임한 태도'라는 평가만을 낳을 뿐"이라며 "기존 학과장원의 1백 50%의 인원만 전공학과 선택이 가능한 것은 대다수의 학생들을 '나오자'로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권군은 "학교는 정당한 교육을 받을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말을 주장이라며 보다는 차라리 강연을 가깝게한다.
 (유)

전공 선택 보장되면 1백% 찬성

"저는 학부제를 통해 예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제 적성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다양한 과목을 접할 수 있었으니까요"라고 학부제 찬성의 이유를 밝힌 장수성(인문2)군.

학부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자 그는 한마디로 '찬성'이라고 대답했다.

본교 인문학부 입학 동기를 묻자 "학과 선택이 없이 그냥 들어왔어요. 진로를 결정하는데 적성같은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죠"라며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전공과목으로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국민윤리학을 전공할 예정"이라고 답한 그는 "선생님이 되려고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다"며 '타 대학에 윤리교과과는 많아요' 국

민윤리학과는 적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 과목을 결정하기까지 두번의 시행착오를 겪었다. "처음에는 사학과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관련 수업도 들어 보았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는 사학과를 접어두고 원력을 전공하기로 마음 먹었으나 그가 배운 철학관련 수업도 그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했다고 한다.

"우연히 윤리과목을 배우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과목은 제 적성에 꼭 맞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윤리학과로 전공을 결정했죠" 그는 그가 겪었던 전공 선택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만약 학부제가 아니었다면 자신의 적성을 알지 못한 채 과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한다.

학부제의 혜택을 톡톡히 받은 그것이지만, 그에게도 학부제에 대한 불만은 있다. "전공을 선택할 때 특정과목에 학생들이 집중한다고 해서 그들을 성직순으로 다루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1백퍼센트 전공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학부제에 1백퍼센트 찬성하겠다"는 그의 말에서 학부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었다.
 <경>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 5기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 출범식 ☆



때 :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곳 : 한양대학교

백만의 대동제, 축제의 장, 10만의 총회, 제2의 6월항쟁의 시발점! 5기 한총련 출범식에 한총련의 주인인 일만이천 민족동국인을 초대합니다.

내가 바로 한총련! 내가 바로 강위원!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는 한총련!

대학시절 일편단심 민족동국 스물아홉번째 자주적 총학생회

국제원효학 심포지움 안내

때 : 97. 5. 30(금) 장소 : 개교 90주년 기념문화관 예술극장

제 1부 개회식 (1 00~1 30)사회 조성택(뉴욕주립대 교수)
 개회사송석구(IAWS회장, 동국대 총장)
 뉴욕주립대 본부장 인사Shirley Strum Kenny (IAWS 회장, USB 총장)
 치사오복원 (동국학원 이사장)
 축사오 명 (동아일보사장, IAWS 고문)

제 2부 주제발표 및 토론 (1 30~ 5 30)
 제 1주제 원효의 사상체계(System of Wonhyo's Thought) (1 30~2 40)사회, 권기중(동국대 불교문화 연구원장)

주제발표: 김영태(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토 문 권기중(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
 서윤필(동국대 사회교육원장)
 은정희(서울교육대 교수)
 최현각(동국대 신학과 교수)
 신규탁(연세대 철학과 교수)

제 2주제 원효사상의 논리구조(Logical Structure of Wonhyo's Thought) (2.40~3 50)사회, 정병조(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주제발표 박성배(뉴욕주립대 교수)
 토 문 목경배(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이영자(동국대 불교대학원장)
 이법산(동국대 불교대학장)
 한보광(동국대 신학과 교수)
 김상현(동국대 사학과 교수)

휴식 (3.50~4 10)
 제 3주제 원효전서 영역상의 난점들(Problems in Translating Wonhyo's Texts into English) (4:10~5:30)사회: 정병조(동국대 부총장)

주제발표 Robert Buswell (UCLA 교수)
 토 문 : 정병조(동국대 부총장)
 신재용(서울대 철학과 교수)
 김희성(서강대 종교학과 교수)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조성택(뉴욕주립대 교수)

총 평(Closing Remark)Lewis Lancaster (UC Berkeley 교수)

국제원효학회

영화단신

영화이야기

◇송기황조...근대 중국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국의 운명을 거머쥔 애령, 미령, 경령 세 자매의 인생 역정. 5년여에 걸쳐 연인원 30만명, 제작비 75억원이 소요된 역사영화. 장만옥, 양자경, 오준매의 눈시를 적시는 명장면과 애절한 음악이 이 영화의 압권. 장만옥 감독의 섬세한 연출력이 발휘되었고 칸느·아카데미 영화제 출품 예정. 오는 31일 서울극장에서 개봉.



연극이야기

◇밤으로의 긴 여로...미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이자 미국연극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유진 오닐의 대표작을 무대화했다. 극의 중요한 테마는 물질욕, 피로운 현실로부터의 도피, 이해와 용서다. 오닐이 개인의 역사를 시작 진실로 승화시켜 놓은 작품. 산울림 소극장에서 6월15일까지 공연.

책이야기

◇컴퓨터로 취직 좀 쉽다...고등학교·대학교 졸업생과 진업을 희망하는 직장인을 위한 컴퓨터 관련 각종 취업 가이드. 컴퓨터 분야의 다양한 직종을 소개하고 직종별 특징과 해당 직종에 취업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 등이 알기 쉽게 설명해 있다. (주)정보시대에서 출간.

음악이야기

◇신촌 동네 음악회...언더그라운드 뮤지션을 발굴해 무대에 세우는 세 번째 신촌동네 음악회. '허벅지 밴드', '청년 단체', '코코레', '비운 오리' 등이 잇달아 무대를 꾸민다.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신촌 라이브장 '넷'에서 공연. 문의(393-8467)

◇ 한국 연극계의 흐름

음란·외설 작품에서 뮤지컬·여성 국극으로 세계 연극제, 우리 연극 자리매김 악영향 우려

김홍우
연극영화과 교수

한국 연극도 선진국의 연극처럼 이제는 그 자리매김을 해나가는 것 같아 보인다. 이점이 최근들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는 현상이다. 극장은 극장대로 그 위치와 크기가 주위환경에 따라 일관성있는 극장이 되어가고 있으며 극단은 극단대로 그 나름의 특성을 갖게 되었고 연극인은 연극인대로 자기만의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작품에 있어서도 그 작품내용의 특성에 따라 정착되었다. 음란·외설작품은 그것을 행하던 사람이 구속되면서 그 나름의 형태로 구축되었고, 뮤지컬의 빠른 확산은 우리의 정서에 어울리는 형태로 변형되며 모노드라마도 개인주의적 사고로 하여 많은 수효가 늘어났다. 즉, 지금까지 10여년전 '배춘'이 공연되면서 음란성이

내포된 극들이 차츰 늘어나더니 1994년 '미란다' 파동이 돌발하였다. 그후 '미란다'의 원형 '볼레션'도 재복합 바뀌어 공연하더니 같은 해 '마지막 시도' 등 나체연극은 대학로 구석구석 소극장에 널리 확산되었다. '마지막 시도'로 재마복 제작진은 그 속편을 마련, 금년에 상연, 물의를 일으키면서 구속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1994년 미란다 파동의 주역 황보씨는 '첫수부인'으로 알려진 예로래우 진도회를 무대에 세워 '진도회의 욕망의 섬'을 공연케 되었고 극단 판도도 '나의 엑스워드'라는 작품을 상연하는 등 벗기는 일만은 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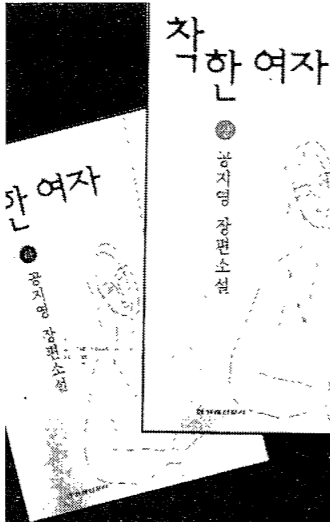
이에 따라 연극협회 산하단체들은 자체 정화에 나서게 되었고 자정하는 분위기로 기울어졌다. 상연 때 주목을 끌었던 레퍼토리의 재상연을 하거나 이에 연극성 강한 새 레퍼토리를 택하여 공연케 되었다. 환 퍼포먼스의 '유리 동물원', 이문래의 '오구-죽음의 형식'이 재상연된 작품이라던 유

인촌 레퍼토리의 '택시 드라이버', 배우극장의 '하바쿠사 김영주', 윤석화의 '나, 김수임' 등이 신작이었다. 한편, 70년대 추송음이 가능성을 보여준 모노드라마는 그동안 공간이 보이다니 금년들어 부쩍 늘었다. 박정자의 '억척어멈', 손숙의 '담배 피우는 여자', 명계남의 '콘트라 베이스', 최영준의 '묘한 콘서트', 이인철의 '슬픈 조용필의 마지막 노래' 등이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 연강홀, 동숭아트센터, 세종문화회관 등 큰 무대에 발표되던 뮤지컬은 소극장은 물론 어린이극까지 확산되었고 그 수효도 많이 증가했다.

에이콕의 '명성황후' (재상연), '겨울 나그네', 동림의 '베이비 베이비', 서울 뮤지컬 컴퍼니의 '쇼 코메디', 서울 시립극단의 '활타지아', 두레박 소극장의 '러브 러브' 등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브로드웨이 뮤지컬 발전에 도움을 커녕 오히려 악영향이 미칠까 우려된다.

'겨울 나그네' 등 한국적 뮤지컬을 대하면서 낙관적으로 보게 되었다. 이외에 올해 전부터 선보이기 시작한 여성극도 금년들어 상연빈도수가 늘었다. 김경수 국극예술단의 '호동왕자', 한국여성 국극예술협회의 '활타지아' 등이 새로운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신과국 악극류의 '울고 넘는 박달재',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또 보고 지고', '이수일과 심순애' 등은 흥취는 있을지 모르나 우리 극의 장래를 위해 위험한 결과를 안겨줄까 걱정이 되었다.

올 가을엔 ITI국제 연극제가 서울 및 가평에서 열려 많은 나라 연극이 소개될 것이며 기존에 있어왔던 춘천, 수원, 청주, 마산, 거창 등의 국제연극제와 인천 한민족 연극제, 파천 국제 마당극제까지 거행될 것이다. 이렇게 세계연극제가 여러 곳에서 거행된다 그 때 자리매김하는 우리의 연극 발전에 도움은 커녕 오히려 악영향이 미칠까 우려된다.



공지영의 '착한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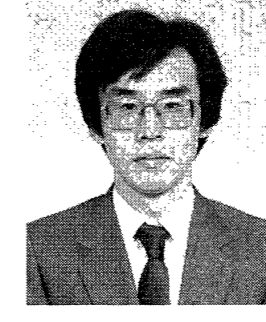
절망·극복을 반복하는 한 여인의 삶 조망 페미니즘 논의에 적절한 텍스트 될 듯

허위·의식에 매몰돼 있는 우리들의 낡은 의식이나 정서를 일깨워 주는 것이란 생각때문일 것이다. 한편의 시나 소설 혹은 어느 한 시인이나 작가가 그 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무관해 보이는 한 개인의 구체적인 삶, 예컨대 어머니에게 열등감을 갖고 있는 아버지의 의도로 파괴된 유년, 각종 컴플렉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남자의 결혼과 그에 따른 고통의 시간 등을 원이점으로 들여다본 것처럼 이야기한다. 아울러 80년대에 혁명과 사랑을 꿈꾸었던, 그러나 혁명은 좌절되고 사랑은 훼손된 청년들의 90년대적 삶의 세복도 주인공의 지순한 연인인 정명수와 친구인 미송을 통하여 그리고 동료이지만 주인공과 고통을 주고받

는 황연주, 남호영 등을 통하여 들려 주기도 한다. '착한 여자'는 젊은 남녀가 만나고 헤어지는 흔한 사랑 이야기거나 남성성과 여성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설정하는 페미니즘 논의에 적절한 텍스트 혹은 이른바 후일담 문화의 변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주인공 정명수에 대한 명수의 순애보를 통하여 이 의미를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케 하는 소설이라는 판단도 크게 어긋난 판단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어찌면 그것은 '착한 여자'라는 거울에 비친 독자들의 희미한 모습일지도 모른다. 다시말해 독자가 한 편의 소설에서 찾아냈다고 생각되는 그것은 읽는 사람의 세계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극히 위험하고 평범한 제목이랄 수

달 하나 천 강에

노력의 대가



누군가 지적했듯이 인간은 쾌락을 즐기며 사는 동물이다. 이러한 쾌락을 제공해주는 것 중의 하나인 시각은 인간들에게 많은 쾌락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사람들은 눈을 통해서 많은 쾌락을 추구한다. 그 쾌락 추구 행위 중의 하나가 영화나 비디오를 보는 것이다. 필자도 영화나 비디오를 보는데 그 정도가 지나쳐 영화나 비디오 광으로 불린다.

이러한 영화나 비디오, 특히 미국 영화나 비디오에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 노력이라는 측면이 많이 강조된다. 즉, 그들의 영화나 비디오에서는 노력하는 자만이 목적을 성취할 수 있으며 하늘이 돕는다. 심지어는 소위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도 목적을 달성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물론, 자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어떠한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만...

한편, 노력을 하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주제를 가진 영화나 비디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화나 비디오도 주인공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지만 계속 노력을 한다.

그러면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국의 영화나 비디오에서는 노력보다는 운이 상당히 부각되는 느낌을 받는다. 한국 영화나 비디오의 주인공들은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운이 좋아서'라고 말하거나 생각한다.

각각의 영화나 비디오의 내용은 각국의 문화를 반영한다. 따라서, 위의 예에서 한국인과 미국인의 의식 차이를 느끼게 한다. 즉, 미국인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결과적으로 세상 사물에 대한 건전한 사고를 가질 것이다.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일의 결과를 운의 대가로 간주한다면, 사람들은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사회는 병들어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을 하더라도 절대 무모해서는 안되며, 또한 절대 정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모든 일을 기획할 때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주위의 조언을 들으며,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일단 결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는 태도가 필요하다. 필자도 최근 사업성 없는 일을 추진했다가 큰 낭패를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노력을 하더라도 주의 깊게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구절이 있다. 또한, 우리 속담에 '계란으로 바위를 치지 말라'는 속담도 있다. 깊게 새겨져야 할 구절들로 필자는 알고 있다.

하헌국 상경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PAGODA
별처럼 빛나는 교수진을 모신것이 파고다의 특징입니다

http://www.pagodaac.com/

<p>미국인 영어회화</p> <p>정규영어 회화과정 집중영어 회화과정</p>	<p>일본어</p> <p>기초 일본어 3개월 완성 중급 일본어 특약 / 일본어 문법 일본어 회화 (초급 I · II · III)</p> <p>스크린 일어회화 및 청취 NHK 일본어</p> <p>교수전원 일본 명문대학 석·박사 출신</p>	<p>NEW 최신 프로그램</p> <p>통신영어 강좌 (4차분포기 수업) 대학원입 영어</p> <p>전문 프로그램</p> <p>미국 WISCONSIN 대학반 독어·불어·중국어 스페인어·러시아어</p>
---	---	---

■ 편리한 온라인 수강신청 시스템 - 종료·입구정·강남·신촌 파고다 4개학원 어디서나 원하는 학원의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종로 276-0579 (영어전국)	신촌 719-0579 (영어전국)	입구정 516-0579 (영어전국)	강남 553-0579 (영어전국)
--------------------	--------------------	---------------------	--------------------

외국어 교육의 선구자
파고다외국어학원

YBM 시사영어사 어학 학원

YBM 시사영어사는 국내 최대의 학원 그룹을 거느린 영어전문 출판사입니다. (국·YBM 시사영어사(주) YBM ELS 13개, EEC 엔어(주) 23개, PSA 1개, EEC E2 (주) 11개, YBM (주) 800명, 4명, YBM 6개, YBM 2개)

ELLS

개강: 6월 2일

영어회화	TOEIC	TOEFL	일본어
<p>Conversation</p> <p>Native Speakers에 의한 영어회화 집중과정, 철저한 Level 및 학사관리로 체계적 실용영어 학습에서 고급까지 단계별 수강. Level Test에 의한 반별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월 2시간 주 5일 1월 1시간 주 5일 	<p>내·외국인강사에 의한 집중 교육 L/C/R/C 및 상급 모의문제풀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월 2시간 주 5일 (L/C, R/C 각 142) 	<p>고급점을 목표로 다양한 시전문제 및 최신 교재로 집중 반복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월 3시간 주 5일 (L/C, R/C, STRUCTURE 각 142) 	<p>● 일본어 집중과정 -1월 4시간 주 5일 6단계 -유학준비 및 각종 시험 대비</p> <p>● 일본어회화 -1월 2시간 주 5일 12개월 과정 -정확한 발음과 일본인 강사의 수업</p> <p>● 기초일본어 -1월 2시간 주 5일 3개월 과정 -초보자 대상의 문법·회화 동시강원</p> <p>● JPT 대비반 -1월 1시간/500·700점정 -정확한 독해의 효율적인 공부</p>

해의유학계 대상 SAT·TOEFL

- 개강: 6월 16일 (8주 과정)
- 문의: 역삼 ELS·신촌 ELS

종로	강남	신촌	역삼	인현	영등포 (7개 OPEN 4개)
<p>● 대표교원</p> <p>YBM 시사영어사 4명 (202) 278-0509</p>	<p>● 대표교원</p> <p>YBM 시사영어사 4명 (02) 565-0509</p>	<p>● 대표교원</p> <p>YBM 시사영어사 4명 (02) 323-0509</p>	<p>● 대표교원</p> <p>YBM 시사영어사 4명 (02) 554-0509</p>	<p>● 대표교원</p> <p>YBM 시사영어사 4명 (032) 865-0509</p>	<p>● 대표교원</p> <p>YBM 시사영어사 4명 (051) 513-0509</p>

해의유학은... YBM 시사영어사 부설 시사어학개발원 | 종로: 273-9671 | 강남: 3452-9671

아시아 지역학부생 '떠돌이 생활' 언제까지

과 신설단계에서 준비미흡... 공간·교과문제 산적

아간강과 총학생회(회장=김선문·아간강제4)는 아시아 지역학부 기초학술권 보장 및 아간강과 전체요구안 관철을 위해 동국관 1동 4층을 점거한 채 지난 13일부터 점거능성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동국관 4층로비, 아시아 지역 학부와 아간 강과 학생의 점거투쟁 모습.

김선문 아간강과 총학생회장은 "지난 98년 이후 학교는 충분한 사실과 교과과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학과를 신설해왔다"며 아간강과의 증과·증원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번 점거능성의 사안으로 정정화된 아시아 지역학부는 올 97년 1학기에 60명 정원으로 신설됐다. 그러나 '1997학업이수 가이드'를 찾아보면 아시아지역학부에는 기본적인 교수소개를 비롯하여 교육목표나 연구경향, 이수방법, 졸업후 진로 등이 나와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아시아 지역학부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된 학생회실 마련안은 이부대 교학과와 동국관 1동 5층 휴게실을 학생회실로 전환해줄겠다는 제안과 아간강과 총학생회의 동국관 1동 4층 여유 공간을 달라는 요구안이 대립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지난 23일 이부대 교학과는 "동국관 1동 5층 교수 연구실을 학생회실로 전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양준모 아시아 지역학부 학생회장이 전공필수 과목 '지역의 이해'

가 주교재 없이 보조교재로 수업이 진행되는 데 불만을 토로하고 영어와 경제에 편중된 수업방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데 대해 이강현 이부대 교학과장은 "수업의 내용은 교수의 재량권이기에 학과에서 제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김선문아간강과 총학생회장은 "적합한 교재조차 준비하지 못한 채 과를 신설한다는 것은 교육의 질과 내용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면서 증과 증원을 실시하겠다는 학교의 일방적인 학사행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양준모 학생회장은 "지난 96년 11월에 발행된 '동국 21세기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의 아시아 지역학 대학원 신설 부분내용에 보면 단순한 계획안임에도 불구하고 추진 계획을 비롯한 교육 연구인력 수요와 초빙대상 외국인 교수명단까지 작성됐었는데 신설된 아시아지역학부는 1명의 정인교수가 학부 60명의 학생을 담당할 채 교수채용에 대한 어떤 계획도 나온 바 없다"며 "어떤 해명도

듣지 못한 학생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강현 이부대 교학과장은 "현재 교수 1명이 1과목 전공에 3시간 수업이라면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전공 강좌수가 늘어나면 교수도 함께 증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과

신용과장은 "아시아 지역학부는 아시아의 사회, 문화, 지리 등 다양한 것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특정 강좌에 교수를 전부 초빙 할 순 없다"며 "보교대 관련학과 교수로 아시아지역학부 전공과목 강의를 실시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선 교수 충원을 하겠다"고 답해 교수채용 계획에 이견을 보였다. 그러나 정작 교과목과 한 관계자는 현재 교수충원은 학과에서 제출한 충원요구안을 검토하여 채용하는데 아직까지 아시아 지역학부에서 제출한 교수충원 요구안은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선문 아간강과 총학생회장은 "신설학과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학교는 단계적으로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해왔다"며 "점차 교육시설 및 내용들을 보강하는 것보다 기획단계에서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는 의견수렴을 통한 계획성 있는 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진 기자)

중앙도서관 정보검색 서비스 확대

문헌복사 서비스도 병행... 외부자료 검색·복사 혁신

중앙도서관(관장=임호일·독여독문학)은 3층 참고도서실에서 외부기관 정보검색 및 문헌복사서비스를 지난 2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외부기관 정보검색은 교직원 및 학생들이 필요한 서적이나 논문을 참고도서실에 구비된 정보검색 신청서에 자료명 및 주제분야를 적으면 담당직원이 이를 도서관에 있는 인터넷·통신검색 프로그램에 연결해 직접 자료를 찾아주거나 도움을 주는 것이다.

과학 관련 문헌이 많은 LG상남 도서관이나, 소장자료가 풍부한 국회도

서관에 들어가 자료검색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료로 도서들을 검색해주는 통신회사들까지 가입돼 있어 필요한 자료들을 본교에서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문헌복사 서비스는 자료검색한 자료가 구비돼 있는 다른 대학도서관 및 외부기관에 보고 도서관이 복사요청해 신청한 이가 그 장소까지 가지 않고 바로 자료를 볼 수 있는 획기적인 운영방식이다. 신청방법은 문헌복사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소정의 복사료 및 우편료를 지불하면 된다.

서비스 신설에 관해 신혜철 참고열람계장은 "많은 학생들이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검색에 서툴기 때문"이라고 실시 배경을 밝히고 "앞으로 좀더 많이 이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서관 측은 3층에 위치한 시청각·마이크로 자료실에도 CD롬 검색이 가능한 컴퓨터 2대와 오디오, TV가 설치되어 있지만 학생들의 이용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많은 이용이 있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대동제, 늘 아쉬운 폐막

지난 23일 녹두사거리에서 진행된 폐막식을 끝으로 97 폭력 대동제가 막을 내렸다.

지난 12일 청년강좌를 시작으로 열린 97폭력 대동제는 20일 통일대행진, 통일노래한마당 등의 전야제 행사에 이어 21일부터 전통공 공연, 바라그림 그리기, 무료의료검진, 락페스티벌 등으로 이어졌다.

이번 대동제는 과 학생회나 동아리가 주최로 열린 행사가 많아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색다르고 다양한 행사가 많았던 반면에 주점으로 가득차 허기없이 주점 운영에만 정신을 쏟은 학생들로 인해 상업주의로 물든 축제로 평가되기도 했다.

이에 구장주(아간강영4) 총학생회장은 '97 폭력 대동제는 그동안 총학생회 대동사업의 일정 중 활력소 역할을 했고 예년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 준비했으나 건전한 대학문화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사회·정치적 내용을 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식자과, '권농의 날' 행사

식물자원학과는 지난 20일 일산 실험농장에서 '권농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송석구총장을 비롯한 식물자원학과 교수 15명과, 3·4학년 학생 30여명이 참여한 이 행사는 모내기, 축구대회 등으로 진행됐다.

'권농의 날' 행사에 대해 식물자원학과 김호성 학생회장은 "머리로 하는 학문을 넘어 실천할 수 있는 학문을 만들기 위해서"라며 그 의미를 밝혔다.

학·전·무·대

가짜 용

○...요즘 신한국당은 '용' 쓰는 '이무기'들의 몸부림판.

혹자는 이를 보고 '용관은 개판'이라나.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너도나도 경선출마를 선언하며 '용' 피기에 범석을 떨지만 모양만 용이지 진짜 용은 없다는 것이 문제. 정작 용피리를 잡고 있는 YS, '용다' 내리보며 한바다.

"용용 죽겠지!"

공포의 관문

○...얼마전 성북구 한진 아파트 축대가 1백미터 비에 붕괴되고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13층 높이로 설계된 아파트가 3차례의 설계 변경과 증축 끝에 20층으로 높아지고, 관할 구청에서는 검토도 보고 판단하여 버섯이 안전학적 판정을 내려주었으나, 설계, 시공, 감리 과정 모두 부실한 합작품이었다고.

이에 아파트 입주자 한마디 "제 2의 삼풍백화점 신세가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숨은 양심찾기

○... "휴지를 가져가지 마세요! 나의 얼굴은 3천동여리의 양심입니다" 휴지를 걸어 놓고 가져가지 말라는, 언뜻 모순처럼 보이는 이 글귀는 학생회관 2층 여학생실 휴지걸이 밑에 붙어 있는데.

알고보니 휴지를 통째로 들고가는 뻔뻔한 사투의 양심에 호소하는 글이라고.

이에 본 회전무대자 개그맨 이경규씨에게 지령을 내리기를 '아껴쓰기(?)를 몸소 실천하는 숨은 양심(?)을 찾아라!'

경상남도 성적표

○...경상남도가 오염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이유인즉 공무원의 방만단속이 기업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판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년간 정기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것.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근시안적인 처사라며 정정을 요구하지만 경상남도는 아직까지 묵묵부답.

이에 본 회전무대자 한마디 "경상남도의 현상 판단 능력은 0점, 환경 파괴 기술은 100점이군요"

참여 사회 연구소 심포지엄

대안적 참여민주주의 방안 모색

참여사회연구소 제 4차 심포지엄이 오는 31일 오후 2시 개교 90주년기념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참여사회연구소와 한국대학원생 대표자 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본교 대학원 총학생회(회장=문안식·사학 박사과정 3학기)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대안적 민주주의의 모색-정치와 참여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1년 6개월의 사회적 논쟁을 진행했다.

'대안적 민주주의의 전망-참여 민주주의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정인(서강대·정치외교학)교수의 발표가 있고

김동준(성공회대·사회학)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참여 민주주의의 정치제도 구성'이라는 주제는 순형재(열린사회연구소) 소장이 발표하고 토론자는 마인심(성균관대·정치외교학) 교수이다.

'발달과 참여 민주주의'라는 주제의 발표자는 정영태(인하대·정치외교학) 교수이고, 토론자로는 장훈(중앙대·정치외교학)교수가 나온다.

마지막으로 발표자와 토론자 전체가 참여하는 종합토론 시간이 진행되는 다.

직원노조 간담회 친절캠페인 실시

직원노조총합(위원장=김정옥)은 단체 및 임금협상 이후 직원의 의견수렴을 위한 분인일 간담회를 5월말까지 실시한다.

안건은 △97년 임금 및 단체협상에 대한 평가 △절대친절! 이렇게 생활화합시다 △정국대학원생 및 서울지부 재정사업 보고 등이며 이외 자유의지와 답변으로 구성된다.

한편 김정옥 위원장은 친절 캠페인에 대해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직원들이 지켜야할 부분이 친절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시정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친절 캠페인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스팔트와의 만남... 있다. 그토록 열심히 붓을 움직이는 노력과 완성품은 과연 비례(?)할까? 사진은 지난 22일 아스팔트 위에 붓터치를 하는 학생들 모습 (오인택 기자)

수강신청기간 변경

97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니 수강신청에 착오없도록 유의하기 바람.

1.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97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기간	97. 6. 11(수)~13(금)	97. 6. 23(월)~25(수)

2. 변경사유

PC에 의한 수강신청시 교내 컴퓨터실습실을 사용하므로 1학년 컴퓨터실습교과목 등 관련수업의 결손을 감소하고자 함.

3. 유의사항

상기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수강인원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내 필수 수강신청 할 것.

교무처장

재학생신체검사

재학생 여러분의 건강증진 및 취업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신체검사를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일 시 : 97. 5. 26 ~ 5. 30
2. 시 간 : 09.00 ~ 17.00
3. 장 소 : 본교 보건소
4. 대 상 자 : 재학생전체(신입생제외)
5. 비 용 : 무료
6. 검사내용 : 순환기질환, B형 간염검역(항원) 및 면역체 형성 여부(항체), 소변검사, 간기능 검사

보건소

97 계절학기 수업안내

- 97학년도 계절학기 수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 -

1. 수업시간 : 97. 6. 27(금)~7. 21(월)
2. 개설대상 교과목 : 신사의 생활, 수업을 포함한 97학년도 1, 2학기 개설 교과목
 - 교과목 특성상 신사의 생활은 2박3일간 사할에서, 수업은 수업장에서 실시함
3. 강좌개설 기준인원 : 가 수강자력 : 신교과과정 중 정규학기의 계절학기만 개설되는 전공교과목
 - 나. 10명 이상 · 기타 모든 교과목(단, 교양선택 교과목 중 신사의 생활, 수업은 20명 이상)
4. 수강자격 및 신청학점 : 가 수강자격 : 97학년도 제1학기 재학생
 - 나. 신청학점 : 6학점 이내(매 계절학기의 취득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5. 성적처리 :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에만 포함하며, 정확성 선별과 학사 징계와는 무관함.
6. 수강신청 : 가 수강신청기간 : 97. 5. 28(수) ~ 5. 30(금)
 - 나. 수강신청서 교부 및 접수
 - (1) 서울캠퍼스 : 교무처 교무과(이부대 학생은 이부대대 교과과로 신청)
 - (2) 경주캠퍼스 : 경주캠퍼스 교무과
 - 다. 제출서류
 - (1) 계절학기 수업 수강신청서(소정양식) 1매
 - (2) 사진 1매(4cm×5cm) - 최근 1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으로 수강신청서 부착용
 - 라. 수강료 : 추후 공고예정
7. 개설대상 교과목 확정발표 : 97. 6. 4(수)
8. 수강신청 변경기간 : 97. 6. 9(월)~6. 10(화)
9. 수업시각표 발표 : 97. 6. 16(월) 예정

교무처장

복학·재입학원 접수

1. 복학, 재입학 원서 접수기간 : 97. 7. 30(수) ~ 8. 1(금)
2. 접수 장소 : 교무처 학적과(본관 3층)
3. 구비 서류 : 가. 일반복학자 - 복학원서 1부.
 - 나. 군복학자
 - 1) 기전역자
 - ① 복학원서 1부.
 - ② 전역일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1부.
 - 2) 전역예정자
 - ① 복학원서 1부.
 - ② 전역예정자 각서 1부.
 - ※ 전역후 주민등록초본 제출시 복학접수 완료됨에 유의.
 - 다. 재입학자 - 재입학 원서 1부.

교무처장

일반휴학원 접수

- 97학년도 제2학기 일반휴학원을 아래와 같이 접수함.
1. 신청기간 : 97. 6. 23(월) - 6. 25(수) = 3일간
 2. 신청자격 : '97학년도 제1학기 재학생
 3. 신청대상자 : 가정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할 수 없는 학생.
 4. 접수장소 : 교무처 학적과
 5. 신청서류 : 보호자가 연서한 일반휴학원(소정양식) 1부
 6. 유의사항
 - 가.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하되, 계속하여 4학기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중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나. 일반휴학기간 만료(2학기)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됨.
 - 다. 휴학연장원은 휴학기간(2학기)이 만료되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교무처장

영상매체비평

영화 - 아버지

"눈물을 아끼세요"

막연한 가부장제 불러 일으키는 상업주의



경이적인 패스트 셀러(fast seller)이자 베스트 셀러(best seller)인 김정현의 소설 '아버지'가 장길수 감독에 의해...

자신들의 아버지, 남편, 혹은 바로 자신을 바라보며 울음을 터트린다. 그러나 모성적인 부성적인 이런 신...

한승희 (대학원 영화학 석사과정)

◇ '97 목격대동제를 돌아보며

볼거리·놀거리·먹거리 풍성... 생각할거리 빈곤

창의·독창·실험성 발휘할 대동제 절실

5월 따뜻한 햇살 속에 오랜만에 동양이 생기가 넘쳤다. 바로 전교생이 하나되는 자리인 '97 목격대동제가 열렸기 때문이다.



전년제 대비 위에 올려놓기, 뽕기 등 흥미위주의 행사는 대동제의 참의미를 퇴색하게 했다. 그밖에 꽃피는 장사, 아이스크림 파는 장사는 뚜렷한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관음에만 급급해...

기 교수회장은 변화하는 대동제를 아쉬워 한다. 이번 '97 목격대동제의 '역시'는 말하리라 당당한 우리의 걸이 아닌 모토를 실천한 행사들은 과연 얼마나 손가락에 꼽힐 수 있을까?

대동제 낙수

배끼 ○...지난 21일 대동제가 시작되면서 또하나 작은 경향이 벌어졌다는데.

이들 지켜보던 교학번의 학생들 어디서 많이 봤다는 듯 한마디 "저 배끼들은 어느 클럽에서 온 애들이냐?"

금연침 ○...대동제 열기가 한창 달아오르던 지난 22일 도서관 앞에서 웃지 못할 진풍경이 벌어졌는데.

금연침을 많이 피웠던 학생들의 무료진료 상담소에서 금연침을 맞은 학생들 중 상담사가 옆에서 열리고 있던 담배시연회에 참가했다고.

금연침을 많이 피웠던 학생들의 무료진료 상담소에서 금연침을 맞은 학생들 중 상담사가 옆에서 열리고 있던 담배시연회에 참가했다고.

금연침을 많이 피웠던 학생들의 무료진료 상담소에서 금연침을 맞은 학생들 중 상담사가 옆에서 열리고 있던 담배시연회에 참가했다고.

금연침을 많이 피웠던 학생들의 무료진료 상담소에서 금연침을 맞은 학생들 중 상담사가 옆에서 열리고 있던 담배시연회에 참가했다고.

금연침을 많이 피웠던 학생들의 무료진료 상담소에서 금연침을 맞은 학생들 중 상담사가 옆에서 열리고 있던 담배시연회에 참가했다고.

금연침을 많이 피웠던 학생들의 무료진료 상담소에서 금연침을 맞은 학생들 중 상담사가 옆에서 열리고 있던 담배시연회에 참가했다고.

금연침을 많이 피웠던 학생들의 무료진료 상담소에서 금연침을 맞은 학생들 중 상담사가 옆에서 열리고 있던 담배시연회에 참가했다고.

금연침을 많이 피웠던 학생들의 무료진료 상담소에서 금연침을 맞은 학생들 중 상담사가 옆에서 열리고 있던 담배시연회에 참가했다고.

금연침을 많이 피웠던 학생들의 무료진료 상담소에서 금연침을 맞은 학생들 중 상담사가 옆에서 열리고 있던 담배시연회에 참가했다고.

금연침을 많이 피웠던 학생들의 무료진료 상담소에서 금연침을 맞은 학생들 중 상담사가 옆에서 열리고 있던 담배시연회에 참가했다고.

금연침을 많이 피웠던 학생들의 무료진료 상담소에서 금연침을 맞은 학생들 중 상담사가 옆에서 열리고 있던 담배시연회에 참가했다고.

금연침을 많이 피웠던 학생들의 무료진료 상담소에서 금연침을 맞은 학생들 중 상담사가 옆에서 열리고 있던 담배시연회에 참가했다고.

금연침을 많이 피웠던 학생들의 무료진료 상담소에서 금연침을 맞은 학생들 중 상담사가 옆에서 열리고 있던 담배시연회에 참가했다고.

금연침을 많이 피웠던 학생들의 무료진료 상담소에서 금연침을 맞은 학생들 중 상담사가 옆에서 열리고 있던 담배시연회에 참가했다고.

금연침을 많이 피웠던 학생들의 무료진료 상담소에서 금연침을 맞은 학생들 중 상담사가 옆에서 열리고 있던 담배시연회에 참가했다고.

금연침을 많이 피웠던 학생들의 무료진료 상담소에서 금연침을 맞은 학생들 중 상담사가 옆에서 열리고 있던 담배시연회에 참가했다고.

금연침을 많이 피웠던 학생들의 무료진료 상담소에서 금연침을 맞은 학생들 중 상담사가 옆에서 열리고 있던 담배시연회에 참가했다고.

금연침을 많이 피웠던 학생들의 무료진료 상담소에서 금연침을 맞은 학생들 중 상담사가 옆에서 열리고 있던 담배시연회에 참가했다고.

금연침을 많이 피웠던 학생들의 무료진료 상담소에서 금연침을 맞은 학생들 중 상담사가 옆에서 열리고 있던 담배시연회에 참가했다고.

금연침을 많이 피웠던 학생들의 무료진료 상담소에서 금연침을 맞은 학생들 중 상담사가 옆에서 열리고 있던 담배시연회에 참가했다고.

금연침을 많이 피웠던 학생들의 무료진료 상담소에서 금연침을 맞은 학생들 중 상담사가 옆에서 열리고 있던 담배시연회에 참가했다고.

금연침을 많이 피웠던 학생들의 무료진료 상담소에서 금연침을 맞은 학생들 중 상담사가 옆에서 열리고 있던 담배시연회에 참가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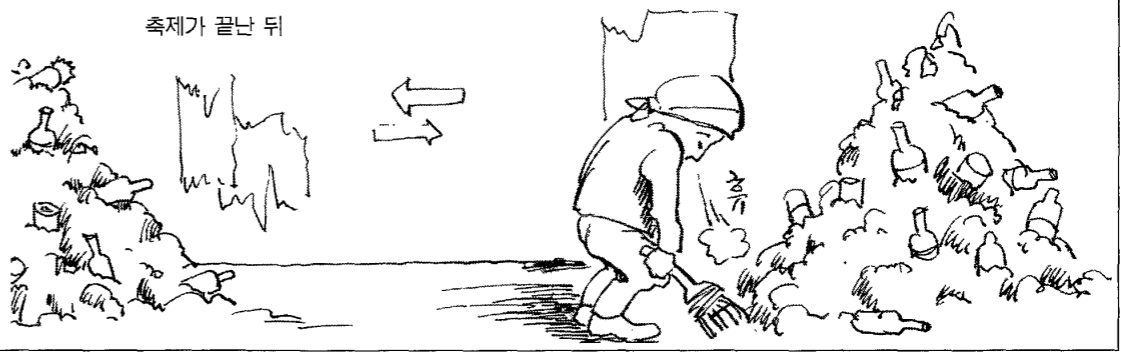
메아리

한국인의 넉넉함

여성의 말에서 우리는 잠시 예전의 TV화면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 몇 년전만해도 우리가 피해자였지만 이제는 가해자가 되어 있다.

은 경연년에 인간비 상승, 또다른 노사 관계 설정이라는 현 중기업 추사 통상부의 반대 입장에, 인권 보장 및 외국인고용제를 인정하면 내국인 고용 제도가 안정될 것이라는 재경원과 노동부의 찬성 입장이 맞서고 있다.

작은 편 고대성 (21)



“1997학년도 후기 동국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Recruitment information for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1997. Includes detail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Law, Education, Business, and Arts, with application dates and procedures.

